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김 하 나

2017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손 명 철

김 하 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김하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상전 (印)

위 원 오 상학 (印)

위 원 손 명 철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표현 및 서술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사례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재현들이 현실 속 불평등을 얼마나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 된 것인지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과서 내용 서술이 재현하고 있는 성차별주의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는 단순히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된 문제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된 수정 권고와 비판하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인 교과서 속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교과서가 보다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 부분(1~7단원)이며, 해당 부분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및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교과서의 성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종의 교과서로 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이 때,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석결과 첫째,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인물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의 40~43%의 밖에 출현하지 않아, 모두 남성편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역시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개 남성 인물이 상황을 주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비해 소극적이고, 보다 적은 활동을 하며(여성의 활동 개수는 남성 활동의 1/3이다), 그나마도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성 인물이 스키를 타고, 암벽 등반을 하며, 용암 사진을 찍고, 일광욕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 인물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한다. 이는 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주로 '간호사, 영양사, 교사, 기상캐스터, 은행원'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이거나 '돌봄 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과서 속 인물들의 역할 및 태도는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셋째, 인물들의 활동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공간 스케일(Scale)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활동의 특성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여성은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인물이 재현된 9차례 중에서 여성이 혼자서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그 한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8차례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모두 남성 인물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여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 남성 인물만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20차례 재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간 활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재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속 다양한 사례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서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기준(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을 벗어나는 인물들, 즉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들이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장애인은 분석의 대상이었던 3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표준 체격을 벗어나는 몸을 가진 인물 또한 거의 재현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모든 사례는 이성애를 기본 전제로 한 사례였으며, 단 한 차례도 성 소수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성의 나이듦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젊고 예쁘고 날씬한' 획일적인 이미지의 여성 인물들만이 재현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한 재현들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점들이 왜 부적절한 지를 밝혔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내재한 재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개발 주체들은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속 삽화를 그리고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필수적으로 성 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성차별적인 교과서 집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등장 수를 맞추고, 주방에 여성 인물만을 그려 넣지 않는다'와 같은 엉성한 사례 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차별적인 재현인지,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삽화나 사진 속 인물의 묘사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 평등을 위한 기계적 대응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 제시를 포함한, 성 평등 교과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지리학, 재현,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과서 분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 례>

Ⅰ. 서론.....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1

2. 연구의 주요 개념 및 전제.....5

3. 연구 내용.....11

4. 연구 방법.....12

5. 선행 연구 분석.....14

Ⅱ. 이론적 배경.....19

1. 페미니즘: 타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19

2. 공간과 여성: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23

Ⅲ.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 및 성별 역할 비중.....28

1. 시각자료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28

2. 텍스트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30

3.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역할 비중.....32

Ⅳ.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35

1. 사진과 삽화에서 제시된 활동들은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가?.....35

2. 삽화에서 제시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처한 상황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45

3. 여성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단독으로 표현된 사례들이 있는가?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이 사례들의 본질은 무엇인가?.....7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공간 활동 범위.....80
1. 성별 공간 활동 범위 분석.....80
2.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82

Ⅵ. 결론 및 제언.....92

Ⅶ. 참고 문헌.....98

부록.....108
[부록 1] 암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108

Abstract.....1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차례>

<표 1> 사진 · 삽화의 여 · 남 출현빈도.....29
<표 2> 텍스트의 여 · 남 출현빈도.....31
<표 3> 교과서 속 시각 자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별 활동 내용.....35
<표 4>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68
<표 5> 시도별 평균초혼연령.....69
<표 6>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78
<표 7> 교과서 속 인물의 공간 활동 범위.....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차례>

<그림 1> 사진·삽화의 여·남 출현빈도(%).....28
<그림 2>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30
<그림 3>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32
<그림 4>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33
<그림 5> GQ의 화보.....42
<그림 6> Outdoor Research의 화보.....42
<그림 7> B교과서,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43
<그림 8>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여성 인물.....46
<그림 9>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남성 인물.....46
<그림 10> B교과서 2단원 도입 삽화.....47
<그림 11> B교과서 3단원 도입 삽화.....48
<그림 12> B교과서 5단원 도입 삽화.....49
<그림 13> B교과서 7단원 도입 삽화.....50
<그림 14> 위스퍼 #여자답게 #LikeAGirl 캠페인 영상.....52
<그림 15> Nike Da Da Ding 영상.....54
<그림 16> A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기술 활용 사례' 설명을 위한 삽화...57
<그림 17> C교과서에 재현된 지진 대처 요령.....60
<그림 18> C교과서에 재현된 태풍 대처 요령.....61
<그림 19> C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한 관공서 입지 선정' 과정
.....63
<그림 20>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모습.....71
<그림 21> A교과서에 재현된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남성 인물 재현.....74
<그림 22>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1.....76
<그림 23>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2.....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그거슨 녯날 말이야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거시 업다고 해요. 사내와 갓히 돈도 버를 수 잇고 사내와 갓히 벼슬도 할 수 잇서요. 사내 하난거슨 무어시든지 하난 세상이야요."(나혜석기념사업회, 2013)

오늘날 일반적으로 분홍은 여성의 색깔, 파랑은 남성의 색깔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1918년 미국에서 발행된 어린이 패션 잡지 <Earnshaw's Infants' Department>에는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남자 아이에게 어울리고, 파랑색은 여자 아이에게 어울리는 색깔이다. 확실하고 더 힘찬 색깔로 여겨지는 분홍이 남자 아이에게 더 잘 어울리고, 여자 아이들은 연약하고 앙증맞은 색깔인 파랑을 입었을 때 더 예뻐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또한, 1927년 타임지에 실린 기사에는 미국 내 많은 지역의 백화점에서 남자 아이에게 권하는 옷의 색깔로 분홍을 이야기하고 있다(Paoletti, 2012). 이처럼 1940년대 이전까지는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에게 맞는 색깔, 옷차림에 대해 현재와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자전거가 보급되고 여성들이 처음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자전거는 여성들에게 자유와 기동성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힘들어하는 표정이 예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키고, 성 정체성을 손상시켜서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등 여성의 성적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자전거 전문가들은 '자전거 타기가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집안일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Ellen Gruber Garvey, 1995). 두 가지 맥락의 의견 모두, 자전거 타기를 여성 개인을 위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취미나 건강 증진,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적인 것, 당연한 것이란 없다'는 것이다. 여자 아이가 파랑색과 로봇 장난감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 아이가 분홍색과 인형을 좋아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단지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성애자였던 여성이 동성애자로 전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지 타고난 성(sex) 때문에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비(非)인권적인 행위이다. 어떤 '성(sex)'으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별로 기대되는 역할을 정한 후 그것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사회는 여성적인 것은 '육체적 약함, 감상적, 부드러움, 헌신, 가정적인' 등의 특성으로, 남성적인 것은 '육체적 강함, 이성적, 합리적, 공격성, 성욕, 진취적' 등의 특성으로 나누고,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성(sex)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 더 나아가 자아실현과 능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나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Serbin, 1978; Whyte, 1983; Reay, 1990; Ortner and Sieverding, 2008; Hoffman et al, 2011; Zhang et al, 2013).

본 연구는 사회 전체의 인식 혹은 통념에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변하면 사회가 원하는 진리도 변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절대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해체되어야 하며, 사실상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또한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니라, 그저 다 같이 존엄한 '인간'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별'을 먼저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성 편향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많은 부분에서는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고정관념과 문화 및 제도, 관습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성 평등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학교 교육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백난희, 1997; 이재혁,1997; 범윤경, 1998),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재현[1]이다. 교육과정은 지식 전수의 거처가 아니다. 실재를 투명하게 나르는 수단도 아니다. 다른 장소에서 생산된 기호들이 순환되는 거처이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기호가 생산되는 장소이다(Silva, 1999; 류현종, 2005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는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재현물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는 단순히 '사실'의 '전달체계'가 아니다. 교과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 및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교과서는 내용과 형식을 통해 실재를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능한 지식을 선별하고 조직하는 독특한 방식도 드러낸다(박부권 외 역,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다양한 시각자료 및 텍스트 자료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며, 교과서를 특정 집단의 이해(利害)를 대변하는 '재현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한 학습매체이다. 비록 오늘날의 교육이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교과서는 기초적인 교수·학습 자료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과정을 설계할 때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가장 먼저 참조한다(박윤경, 2003). 또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학습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사와 학생에게 기초적인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명시적 혹은 잠재적으로 성차별적인 의식이 재현되어 있다면, 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학생들은 무의식중에 이를 내면화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재현은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현이 현실이나 실재를 만들어내기

1) 재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연구의 주요 개념 및 전제'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때문이다. 즉, 교과서와 같은 재현물에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자체가 곧 현실 속의 사회적 약자들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사회 교과서 속 지리 영역에 '재현'되어 있는 '젠더(gender)'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으로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지리교과는 지리적인 발견과 법칙 및 사상(事象)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과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지리교과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일 것으로 기대되기에,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오히려 고정관념 및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기후 지역의 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뒤, 해당 단원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거나, 농사를 짓거나, 유럽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등의 내용만을 제시한다면 이 지역은 기후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곤하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편견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시적으로 덜 등장하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간 사용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재현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는 내용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고, 오히려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욱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성 편향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표현 및 서술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사례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재현들이 현실 속 불평등을 얼마나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과서 내용 서술이 재현하고 있는 성차별주의와 성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정관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는 단순히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된 문제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된 수정 권고와 비판하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인 교과서 속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교과서가 보다 성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2. 연구의 주요 개념 및 전제

1) 섹스와 젠더(sex and gender)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속성이나 기질 등이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유래한 것이고,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성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아 사회화되고, 강요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을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다. 생물학적 성(sex)이란 해부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여성 혹은 남성을 결정하는 신체적·유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 성(gender)은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획득·형성된 것으로서, 성의 사회적·문화적 창조물이라고 정의된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즉,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 해부학적 구조가 섹스(sex)라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적 습득의 결과가 젠더(gender)인 것이다. 따라서 젠더(gender)란 무엇이 '여성적'이고 무엇이 '남성적'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공유되는 일련의 규범과 기대를 의미하며, 섹스(sex)와 젠더(gender)의 차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박경환 외 역, 2015).

2) 여성성과 남성성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대를 받는다. 성(sex)이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인 기준에 맞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요구받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적'이길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을 위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예컨대, 능력 있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은 '기가 세다, 독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주변 남성들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은 여성은 '여자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저평가된다. 또한, 치마를 입는 남성,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남성은 '남자답지 않다, 이상하다'는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녀 또는 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만약 상대방의 성별을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 태도와 같은 특성들이 성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벌린 채 앉아도 되는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호탕하게 하하 웃어도 되는지, 한여름에도 상의 안에 이너웨어(inner wear)를 입어야만 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성별을 통해 판단된다.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는 자연적인 구분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차이는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져서,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들은 여성성과 관련된 특징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젠더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혜택을 준다(Royal Geographical Society (with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1997).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는가?

각 성별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정태연, 류원정, 2004; 정태연, 이윤미, 2004).

여자다운 아이의 특성에는 얌전함, 수줍음, 여림, 배려, 순종적 등이 포함된 반면, 남자다운 아이의 특성에는 활발한, 용감한, 적극적, 주도적, 의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에는 자상함, 배려심 등 타인 지향적인 성격과 꼼꼼함, 가정적, 헌신적 등 가족 지향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가사, 내조, 자녀양육 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신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인 측면에서는 '꾸미고, 예쁘고, 작고'와 같은 특성들이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반면에 남자다운 어른의 특성으로는 지도력과 추진력 등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강조되었고, 포용 및 솔선수범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그 외에 남자다운 어른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강하며, 과업적으로 능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아이와 어른의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특성에는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여자다운 청소년의 경우 배려와 예의, 어른 공경과 순종, 단정, 착한 등의 특성에 대한 응답이 제일 높았으며, 이 외에도 발랄하고 감성이 풍부한, 잘 웃는 등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멋내기 등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예쁜, 가사를 돕는 등의 전통적인 여성성과 일치하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특성으로 제시된 것들은 씩씩한, 도전적, 자신감, 용기, 활발과 같이 외향적인 특성과 관련된 응답이 제일 많았고, 이 외에도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이성에 관심을 갖는,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등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생각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이란 한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여자 혹은 남자라는 것을 구분 짓는 순간부터 그 문화에서 그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규정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나가는 성형화(sex-typing)과정을 촉발시켜, 이 성형화 과정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성격 특성, 태도, 선호 경향, 행동 등을 모두 합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소속해 있는 문화 내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태도와 행동 양식, 인지 특성으로서 여·남을 구분시키는 특정화된 개념을 의미한다(민경석, 1993). 따라서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구와 기대로 인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며,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성역할 고정관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란 여·남의 역할 구분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Broverman et al, 1972). 사람들은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근거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특정 능력 및 행동양식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성성과 남성성의 분류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각 성(sex)에 요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인용한 한국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여성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적인 성공'과 같은 이미지는 없다. 주로 순종적으로 헌신하고 배려하며, 가사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들이 여성의 역할로 제시된다. 반면, '바람직한 남성'의 이미지는 신체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미래 지향적이며, 의리와 용기를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나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은 돌봄과 가사를 담당하는 존재, 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반면, '남성'은 강하고, 능력 있고, 의리가 있으며, 심지어 미래 지향적이기까지 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첫째, 사회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권적이다. 둘째, 여성의 특성으로 고려되는 것들은 남성의 특성으로 고려되는 것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에 위계질서가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주된 역할 자체가 저평가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인 여성 또한 저평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강하고, 겁 없고, 이성적이며, 터프하길'바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렇지 못한 남성 개인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생물학적 남성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억압한다[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며, 개성에 근거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것, 따라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의 글은 정월 나혜석 선생의 글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정관념화된 성역할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 아닌 '욕'을 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가 성역할을 재생산해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된다.

욕 말이오? 그 계집이 활발하다, 그 여자 말도 많다, 건방지기도 하다, 남자와 교제가 많다..... 이 욕말이오?

칭찬말이오? 그 색시 안존하다, 얌전하다, 말이 없다, 공손하다, 남자를 보면 잘 피한다..... 이 칭찬말이오? **-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3**

4) 재현

2016년 말, 미국의 대선 결과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당선된 인물에 비해 본 선거에서 득표수가 200만표 가량 더 많았던 유력 후보는 지지자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그들 중 일부는 성조기를 불태웠다. 이 영상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서, 어떻게 너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댓글이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사람들은 대선의 결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성조기'를 불태웠을까? 그리고 시위대가 성조기 깃발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왜 사람들은 "네가 그러고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성조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재현'이라 할 수

2) 맨박스(Menbox),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다. 재현은 '대표한다', '대신한다', '나타나게 한다', '다시 떠올리게 한다'의 의미로 쓰인다. 즉, 재현은 지금 없는 무엇을 다른 수단으로 현전(presentation)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성조기'로 현전시켜 사고하고 있다.

이처럼 재현은 "부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추상적인 것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상(기호)의 수단으로 머릿속에 제시(떠오르게) 하는 것" 또는 "(부재하는 대상 혹은 개념을) 영상·형상·기호의 수단으로 감각 가능하게 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명수, 1997).

그렇다면 이러한 '재현'은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재현에 관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재현을 '현실'이나 '실재'를 모방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재현의 영역 밖에 실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재현된 것을 실재와 동치하여 보려고 한다. 현실과 재현을 동일시함으로써 재현을 단지 고정되고, 완성되고, 정적인 생산물로 바라본다(Silca, 199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재현된 세상을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광고와 드라마, 예술 작품, 소설, 웹툰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여성성'과 관련된 재현물들을 접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모성'을 가진 존재 혹은 '성적 대상[3)]'으로 재현되곤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재현물들을 접한 여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은 당연히 여성은 '모성'을 가진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재현물을 통해 재현되던 '여성' 및 '여성성'에 관한 사회의 관념은 이미 재현 밖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즉, '여성성' 안에는 이미 모성과 성적인 측면(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존재라는 인식 등)이 존재하고, 각종 재현물들은

3) 모 걸그룹의 멤버가 남성용 헤어 왁스 광고를 찍었다. "남자들이여 단단하게 세워라, 머리를"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이 광고는 광고 내내 해당 여성이 의자를 가운데 두고, 섹시한 포즈로 춤을 추는 장면만이 등장한다. 심지어 영상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해당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의 일부분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춤을 추는 와중에 아주 잠깐 광고 중인 제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심지어 그 모습과 구도는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묘사했다. 아마도 광고주는 이 광고가 기발한 광고 문구를 사용한 상당히 재치 있는 광고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광고 속에서 여성은 단지, '남성의 성기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해당 영상 속에서 여성이 춤을 추는 것은 자신의 취미, 노력, 도전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서(타인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서 '대상화'되고,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한 실재(實在)를 모방하여 재현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성을 가진 존재'나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즉, '생물학적 여성'의 '여성성', 그의 타고난 운명이 '모성'이라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현을 통해 여성을 '어머니'로,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구성해 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현은 곧 현실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재현이 담론[4]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현은 단지 실재나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현이 현실이나 실재를 만들어낸다. 특정한 이해와 관념, 해석, 의미 등을 '현실'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상으로 만든 것이다.

재현 체계가 특정 사회적 세력들, 즉 부르주아, 남성, 이성애, 전문가, 서구, 근대론자 집단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소수자들의 '진짜' 모습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강내희, 2000). 노동자, 여성, 시민, 청소년, 동성애자 등이 현존의 지배적 재현체계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작동하는 재현의 정치는 재현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 확보를 통해 사회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덧씌워지는 부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 그리고 비가시성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시도할 수 있다(류현종, 2005).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4) 담론은 특정 주제에 관한 특정 신념들 혹은 사상(思想)들을 자명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자연화 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순환시키고 유지시키는 진술들, 이미지들, 이야기들, 실천들의 관계 망을 묘사하는 용어(Giles, Middleton, 19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에서의 성별 편중성에 대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의 지리 영역 부분[5]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종의 교과서 중 채택률이 높은 3종의 교과서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내용분석 기법(content analysis)으로써 교과서를 사진과 삽화 및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단순히 '그림 이미지'만 제시된 경우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삽화' 모두를 포괄하여 '삽화'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는 핵심적인 개념 제시나 사상(事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말글 부분'과 학습자가 직접 학습내용을 적용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는 '활동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

우선,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빈도, 텍스트에서 특정 성(Sex)을 상징하는 용어의 출현빈도, 삽화 속 등장인물 중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Sex)의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진과 삽화에서 제시된 등장인물의 활동 및 직업 표현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지, 만

5) 교과서 1~7단원에 해당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약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면 이 사례들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의 성별 공간 활동 범위를 분석한 후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공간 스케일(Scale)별 인물들의 활동 범위를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렇다면 이에 내재된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적 분석으로서 빈도 분석은 총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질적 분석으로는 교과서의 구체적 사례에 나타난 의미와 이에 내재된 인식을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여성과 남성이 출현한 횟수를 세었는데, 이때 단순한 노출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단, 등장인물이 집단으로 제시되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명으로 처리하였고, 여·남이 집단으로 혼재되어 정확한 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각각 여·남 1명으로 처리하였다. 이야기 삽화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중복되어 나타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면 1명으로 처리하였고, 등장인물이 같은 이어지는 삽화이나 각각의 장면에서 독립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료로 처리하여 그 수를 헤아렸다.

텍스트의 경우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과 같이 여성이나 남성을 지칭하는 호칭이 등장한 횟수를 세었고, 이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분석에서는 사진, 삽화 및 텍스트에 특정한 성(Sex)만 제시된 경우 각각 여성 중심성 또는 남성 중심성으로 처리하였으며, 등장인물에 여·남이 혼재되어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Sex)을 기준으로 하여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이야기 삽화에서는 여러 장의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면 1개로 처리하였고, 각각의 그림이 다른 주제 및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료로 처리하였다. 한편, 한 개의 자료에서 여·남이 서로 다른 성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자료로 처리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성역할 표현에서의 성별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제시된 여·남 주인공이 각각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조사하였고, 주인공의 직업을 종류별로 파악하여 각 성별로 그 수를 세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활동의 종류와 특성, 직업의 종류가 각 성(Sex)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 사례들의 본질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들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4단계의 공간 스케일(Scale)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는 성별에 따라 공간 스케일(Scale) 별로 재구분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공간사용의 차이와 이에 내재된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삽화 및 텍스트의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사례가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5. 선행 연구 분석

교육 내용의 성 차별성을 비판하는 국내 연구들은 크게 ①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기존의 편향된 성역할을 재생산하여 오히려 성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성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연구와 ②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교과서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 내용의 성 차별성을 지적하는 연구, 그리고 ③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별 특성이 교과서의 지식 선정과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 ④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의 4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교 교육은 아직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신희정, 2003; 신혜섭, 2007; 백미화, 2010). 예컨대 여학생들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과서에 제시된 성 정형화에 의해 피해적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역할의 차별적 구조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이는 성별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와도 일치한다(백난희, 1997)는 식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별 출현 빈도, 성별 역할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성 차별성을 밝혔다. 예컨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영역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성 차별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지희, 2001)가 있으며, 사회과의 일반 사회 영역에 나타난 성 의식에 관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교과서가 성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노경희, 2007),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성의식을 분석한 연구(이은영,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과의 지리 영역 혹은 지리 교과에 나타난 성역할 및 성 편향성을 분석한 연구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Gender Bias를 분석한 윤석희(2004)의 연구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집필자의 성별 특성이 교과서의 지식 선정과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주경란, 1985; 최정윤, 2006). 이러한 연구에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차별적 태도는 그들의 존재조건에 기인하며 집필자들의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는 교과서에 반영되고, 이는 곧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의 성차별적 태도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과 교육에서 성차별적 태도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해냈다(최정윤, 2006).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인권친화적인 교과서를 위해 기존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교과서 내의 성 차별적·인종 차별적인 내용, 여성과 장애인 및 성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 현재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구정화, 2004; 이진석, 김혜현, 2005; 최현호, 2005; 최형찬, 2014 등). 한편, 교과서 속의 성차별적 내용 제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성차별적 내용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1).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고, 인권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에서는 여·남 등장인물의 양적인 균형은 비교적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불균형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맥락에서 특정 성 노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 외에도 교과서의 성 불평등 재생산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노동의 성적 분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 성 불평등에 관한 분석을 하거나(심미옥, 1982), 가정과 학교에서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각 개인이 지닌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연구(이재혁, 1997)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영국에서도 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리 교사들의 정보와 교육 네트워크인 GEON(Geography Equal Opportunities Network)은 '1984년에 이루어졌던 지리 교과서 분석의 결과'와 '1991년과 1992년에 새롭게 발행된 KS3용 지리 교과서 13종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1984년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리 교과서가 성차별적인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편견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GEON의 연구 결과, 1991년과 1992년에 새롭게 발행된 K3용 지리 교과서 13종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교과서 집필진',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과 삽화', '교과서에서 사용된 언어', '교과서 속 인물들의 역할과 활동'의 측면 모두에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교과서 속에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교과가 양쪽 성 모두에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Jane Connolly, 1993).

학생들의 사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취학아동들에게도 이미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아동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Serbin(1978)의 연구가 있다.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cross-sex toy를 가지고 놀던 아동은 또 다른 아동이 놀이방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난감'만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cross-sex toy란, '성 고정관념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여아에게는 트럭과 비행기, 남아에게는 그릇과 인형 등의 장난감이 해당된다. 다른 아동이 놀이방 안으로 들어서자 본래 본인이 가지고 놀았던 '성 고정관념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을 버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장난감'만을 가지고 노는 아동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실과 운동장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모든 부분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Whyte, 1983). 또한, 여아와 남아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아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아는 대체적으로 항상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Whyte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문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경험적 연구 중, 반-성차별주의를 위한 실천의 한 요소로서 초등학교에서 '하나의 성만으로 구성된 그룹'에서의 학습을 시도해 본 연구가 있다(Diane Reay, 1990). 이 실험에서는 특히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그룹을 운영해 보았다. 그리고 실험 결과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룹 속에서 여학생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취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수학 테스트에서 가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Zhang et al, 2013). 즉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남성의 이름이나 다른 여성의 이름을 쓰고 수학 테스트에 임했으며, 단지 그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성들은 더 좋은 성취도를 얻었다. 이는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여성인 자신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테스트를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정관념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고, 더 나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구도 진행되었다. 몇 분 동안만 전형적인 남성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 뒤 테스트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행하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여성들의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다(Ortner and Sieverding, 2008). 이러한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전 가능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이 되는 여성의 나이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성이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취업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사들의 성 고정관념이 학생(특히 여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Lavy and Sand, 20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즘: 타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페미니즘(Feminism)[6]은 성차별주의(Sexism)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이자 운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으로써(벨훅스, 2002), 이러한 착취와 억압의 폐지를 통해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실천적 의지를 담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페미니즘의 관점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구분

페미니즘은 당연시되는 관념과 상식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자연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남의 구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별의 구분 과정은 한 사회 내에서 권력과 기회를 차등 분배하는 과정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그의 유명한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이희영 역, 2009).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 즉 젠더(gender)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표현이다.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젠더(gender)란 무엇이 ‘여성적’이고 무엇이 ‘남성적’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역할, 기대를 의미한다. 페미니즘 이전의 논의에서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sex)로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고, 따라서 권력과 역할이 차등으로 분배 될

6) 페미니즘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도입기에는 ‘여권론’, 1980년대에는 ‘여성 해방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원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여권론’, ‘여성 해방론’, ‘여성주의’ 어떤 용어로 사용되든,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단지 각 용어가 사용되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페미니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는 주안점이 달라지면서 용어가 달라졌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사회에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키워지는 젠더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때 그 차이는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져서, 여성성과 관련된 특징들은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가부장제 비판

가부장제는 영어로 'patriarchy'라고 하는데 어원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아버지의'라는 뜻의 'patri'와 '지배'라는 뜻의 'archy'가 합쳐져 생긴 단어다. 즉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게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위 혹은 지배'를 의미한다(조옥라, 1986: 54). 그러나 페미니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부장제의 개념은 단순히 한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지배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남성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지배하고 여성들은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가족 안에서 사적 가부장제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성 불평등을 생산하는 공적 가부장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아울러 가부장제는 사람들의 습관·문화·성 등의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깊게 침윤되어 있는 관습이며 이데올로기[7]이고 사회 체계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가부장제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집사람'으로 불리는 아내는, '바깥양반'으로 불리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해야하기 때문에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줘야 하고, 속옷 빨래를 해줘야하며, 입고 나갈 옷을 미리 다려놓아야 한다.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며, 이것은 '가정'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적 가부장제의 한 단면이다.

한편, 공적 가부장제의 예로는 취업시장에서의 차별을 들 수 있다. 같은 능력을 가진 경우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며, 승진 및 임금 협상

7) Mannheim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란 현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데에 동원되는 일련의 세계관적 믿음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체계는 우리의 의식구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확산된다고 한다(Andersen, 1983; 최정윤, 2006 재인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과정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 남성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봉 인상과 승진의 대상이 되는 반면, 여성은 연봉 인상과 승진 논의의 과정에서 배제된다. 심지어 해당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은 변치 않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이 '가장'일 것을 전제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에 따른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차피 빠져나갈 인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다 비전문적으로 여겨지고, 덜 선호되어진다(한국여성민우회, 2015)[8].

한편, 2000년대 초반에 '00아 사랑해'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전에 비해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것은 '00아 사랑해'라는 문구에 '결혼 안해도/다이어트 안해도/화장 안해도'를 넣었다는 것이었다. 즉, '00아 결혼 안해도 사랑해'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가 제작된 것이다. 참고로 여기 등장하는 '00'이는 생물학적 여성이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작진 측에서는 이것이 페미니즘 광고라고 주장 하였지만, 이 광고는 여러 측면에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자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지 말지는 주체인 00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00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식의 재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가부장적 관계를 볼 수 있다. 즉, 남성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여성을 사랑해주는' 위치에 있는 반면, 여성은 '사랑을 받는, 남성에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함을 느끼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

8)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임금 대비 여성 월평균임금은 2009년 63.5%에서 2013년 64.6%로 남녀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63.7%, 2015년 62.5%로 남녀 임금격차가 계속 증가함으로서, 2015년에는 2010년 이래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5% 수준에 불과하여 여·남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35&menuId=2003102&rootId=2003000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고용률은 여성이 2009년 47.7%에서 2015년 49.9%로, 남성은 2009년 70.1%에서 2015년 71.1%로 여·남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고용률의 차이는 20%p 수준으로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별 고용률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34&menuId=2003102&rootId=2003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같이 여·남 간의 불균형한 관계가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체계를 바로 가부장제적 사회관습 또는 사회체계라고 한다.

(3) 인식론적 특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적 지식이란 지식자의 사회적 위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고 몸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남성에 의해 생산된 남성중심적(masculinist) 위치다. 진리는 맥락과 가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은 자연과 분리된 반면 여성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감정 그리고 몸과 연결된 존재로 규정되던 시절에 탄생했다. 이처럼 과학과 합리성의 대두라는 역사적 맥락은 남성성을 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여성은 이성적이고 중요한 지식 생산자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낳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성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진리이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간주되었는데, 이런 생각은 여성과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분야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젠더화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이 능동적으로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고, 동시에 이성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중요하거나 알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은 배제하게 되었다. 지식의 젠더화는 무엇이 지식이라고 간주되는지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주체인지를 구조화했다(박경환 외 역, 2015).

남성 중심적인 학문 세계에 도전하는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관점은 크게 입장론과 경험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입장론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을 연구에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학문의 객관성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 회의적이다.

‘객관성’, ‘이성’, ‘합리성’으로 정의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지식들은 사실 연구자의 주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자의 사회적 위치와 분리된 지식을 뜻한다. 하지만 페미니즘에서는 모든 연구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위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지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9]. 페미니스트 입장론에서는 이렇게 입장의 상대성을 인정할 때, 기

9)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1986)은 ‘외부 어디에선가로부터 보는 입장’, 곧 과학자의 주관성에 의해 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의 전통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인 입장보다는 주변화된 집단 또는 억압 받는 집단의 입장에 있던 여성들이 사회와 세계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한편, 여성주의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기존 학문이 남성의 경험을 인간 전체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인 양 여김으로써 사실상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남성 중심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즉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을 학문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보거나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과학의 남성 중심적 편견을 극복하려면 여성의 경험을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참다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5).

2. 공간과 여성: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은 크게 지리학의 남성중심성 비판과 공간의 젠더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흐름을 만들고 있다. 우선 지리학의 남성중심성 비판은 지리학에서 여성 지리학자의 부족, 그리고 남성의 시각과 경험을 보편화한 지리학 지식, 따라서 지리지식의 생산자이자 대상으로서의 여성 배제를 다룸으로써 지리학계와 지리학 지식의 남성중심성을 문제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여성을 복원하고 가시화하고자 했다. 학문 대상으로서 공간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공간이 젠더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젠더 관계가 공간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몸이라는 미시적인 스케일의 공간에서부터 가정, 커뮤니티, 근린지구, 도시,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인 거시 스케일의 공간까지 어떻게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들이 젠더화되고 또 젠더 관계가 이러한 공간(들)을 통

염되지 않은 입장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을 내세웠다. 그녀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위치에서 볼 때에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딩은 더 나은 형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보통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이 포함된) 복수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강한 객관성'을 창출할 것을 주문한다(박경환 외 역, 20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 구성되고 강화되며 변환되는지를 다룬다. 즉,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에서의 여성 복원 및 가시화, 그리고 젠더 문제를 공간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해왔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따라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 전체에 대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시도한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지리학 연구에서 젠더(gender)의 함의는 사회와 공간을 변형시키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함의와 최소한 똑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984: 박경환 외 역,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젠더의 역할은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1)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흐름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기간은 '여성에 대한 지리학'(a geography of women)이 태동한 시기였다. 그 당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여성들이 여러 생활부문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여기서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자리'(women's place)를 자의적으로 상정해놓고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여성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편,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성별분업과 여성의 지위상 불평등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점차 불평등한 패턴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지리학(a geography of women)에서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으로 점차 나아갔다(손명철 역, 1993).

(1) 지리학에서 여성을 가시화하기

지리학에 페미니즘이 도입되던 초창기에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첫 번째 흐름은 여성을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및 여성 지리학자를 가시화하는 것이었으며 지리학 연구에서 여성의 배제를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10]의 'human'이 사실상 인간이 아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남성을 뜻하며, 남성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면서 '여성'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지리학의 주제나 지리적 지식, 언어, 개념 등은 남성의 시각, 남성의 영역, 남성의 경험에 국한된 것들이었고, 그러한 것만이 보편적, 합리적, 객관적, (젠더)중립적인 지식인 것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리학에 페미니즘적 시각이 도입되면서, 가정 내 권력관계, 여성의 통근, 보육 시설, 도시 폭력에 대한 여성의 공포, 의료 서비스 등 자원에 대한 여성 접근성, 여성의 우정 네트워크, 여성의 사회 이동성, 비공식적 노동 등으로 지리학의 관심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2) 젠더와 공간에 대한 폭넓은 관심 갖기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공간성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공간이 젠더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젠더 관계가 공간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어 왔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컨대,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들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도시가 발달하면서 원래 도시 내부에 위치해 있던 주거지역은 도시의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젠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심은 임금 노동을 위한 남성들의 장소(공적 영역/공간)로, 도시의 교외 지역에 위치한 가정은 여성의 장소(사적 영역/공간)로 분리되었다. 이는 여성의 삶을 가정으로 묶어놓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도시지리학'에서는 이러한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서술 없이, 그저 교통의 발달과 도시 환경의 악화로 인해 백인 중산층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교외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에 위치하던 중산층 백인들의 집이 도시 교외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그 집에서 가내 임금노동을 하던 흑인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으로 다가왔다. 당시 자동차라는 개인 교통수단은 거의 남성들에 의해 전유되었기에, 여성들은 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했다. 특히 가난한 흑인 여성들은 장거리 이동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10) 전통적으로 지리학은 '계통지리'와 '지역지리'로 구분된다. 그리고 '계통지리'는 또 다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로 나뉘는데, 이를 지리학의 '이중적 이원성'이라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사실은 도심에 거주하던 흑인 여성들이 교외에 있는 중산층 백인의 집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했던 이들은 졸지에 일터를 잃었다.

또한, 남성에 의한 자동차 통근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었던 초기에, 기동성이 없었던 여성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에게 일자리는 도보 거리나 대중교통이 닿는 지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제약되었다. 게다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 때문에 자녀가 학교나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었고, 공간적 제약에 덧붙여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일자리의 기회를 더더욱 빼앗아 갔다.

따라서 여성은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에 맞는 일자리를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급여가 적고, 비전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젠더관계는 이렇게 공간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 지리학은 이러한 여성들의 도시 경험과 처지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해석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백인 중산층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 변화를 다룰 뿐이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3) 지리학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케일을 도입하기

가장 최근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의 전통 주제 및 지식의 젠더화를 넘어,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케일을 지리학에 도입할 것을 제기했다. 즉, 이전의 지리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몸(body)'과 '가정(home)'이 중요한 분석 스케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젠더와 함께 섹슈얼리티, 정체성, 주체성, 위치성, 상황적 지식과 성찰성 등 페미니즘의 주요 주제와 핵심 방법론이 지리학 내의 새로운 흐름과 문제의식들을 만들었다. 또한 당연하게 여겨온 이분법들(가정과 일터,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몸과 정신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위계화된 구분에서 저평가되고 비가시적이었던 것을 재주장하거나 이분법이 나누는 두 범주 간의 경계가 사실은 훨씬 희미하고 흐릿하며 유동적이라는 점을 제기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예컨대,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동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분석을 시도한다. 그것은 몸의 이동(Young, 1990)에서 일상적인 출퇴근 패턴(Hanson and Pratt, 1995)과 여행 및 탐험(Blunt, 199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먼저, 몸의 수준에서 보자면, 도시를 단순하게 걸어다니는 것조차 여성과 남성 간에는 매우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11]. 그리고 이런 차이는 피부색이나 장애 유무에 따라서 한층 더 강화된다. 즉,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주체의 성별이 어떤지, 피부색과 장애 유무가 어떠한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수준에서 보자면,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 통근 패턴은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통근 시 자녀의 학교에 들르거나 쇼핑을 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들르는 등 남성 인물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이동패턴을 보인다(박경환 외 역, 2015).

이러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젠더를 분석의 범주로 추가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첨가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젠더를 분석의 범주로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기존에 지리학에서 세계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연구하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장을 던진다. 또한 이는 분명 현실 세계에서의 투쟁을 조명하고 그것에 근거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박경환 외 역, 2015).

11) 여성들의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공간 사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공간 사용에 제약을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Ⅴ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 및 성별 역할 비중

1. 시각자료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여성과 남성이 출현한 횟수를 세었다. 등장인물의 단순한 노출의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의 그래프는 각 성별 인물의 출현횟수를 비율로 재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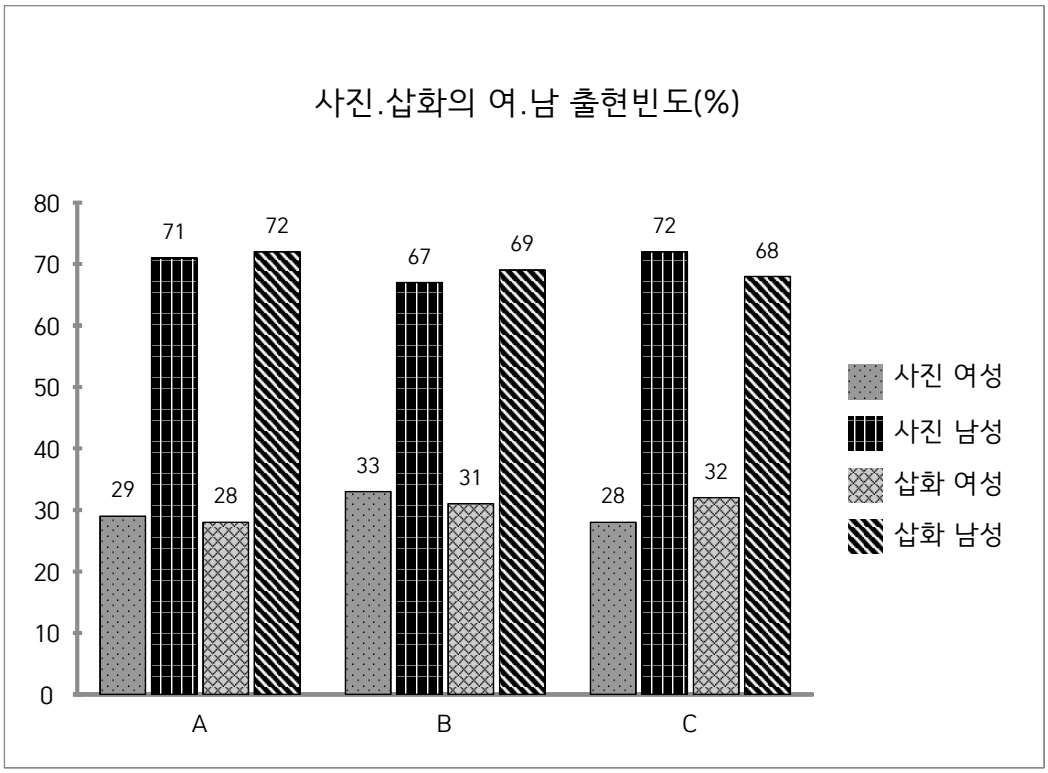


그림 1. 사진·삽화의 여·남 출현빈도(%)

A, B, C 교과서를 각각 분석해서 비교해 본 결과, 교과서 속 시각자료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과서 별로 수치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성 등장인물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A교과서 사진 자료 속 여성 인물은 총 43회 등장하여 29%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남성 인물은 총 104회 등장하여 71%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또한, A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총 53회 등장하여 28%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데 비해 남성 인물은 총 137회 등장하여 72%의 출현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된 세 교과서 중에서 A교과서 속 삽화 자료의 남성 편향성이 가장 높았다. 한편, B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B교과서 사진 자료에는 여성 인물이 총 35회 등장하여 33%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남성 인물은 총 71회 등장하여 67%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삽화에서도 비슷했는데, B교과서 삽화 속 여성 인물은 총 42차례 등장하여 31%, 남성 인물은 총 92차례 등장하여 69%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교과서의 사진 자료는 여성 인물이 총 26회 등장하여 28%, 남성 인물이 총 68회 등장하여 72%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분석의 대상이 된 세 교과서 중 사진 자료에서의 남성 편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C교과서의 삽화 자료는 여성 인물이 총 70회 등장하여 32%, 남성 인물이 총 149회 등장하여 68%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표 1> 사진·삽화의 여·남 출현빈도

단위: 명, (%)

교과서	사진		삽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A	43(29)	104(71)	53(28)	137(72)
B	35(33)	71(67)	42(31)	92(69)
C	26(28)	68(72)	70(32)	149(68)
계	104(30)	243(70)	165(30)	378(70)

* 위의 수치들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현하였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 교과서 분석의 결과로 얻은 분석 값들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에서의 남성 편향성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사진과 삽화 자료 모두에서 여성 인물의 출현빈도는 30%로, 남성 인물의 출현빈도인 70%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2. 텍스트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

이번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남성을 지칭하는 호칭 및 이름이 등장한 횟수를 세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2는 각 성별 인물의 출현횟수를 비율로 재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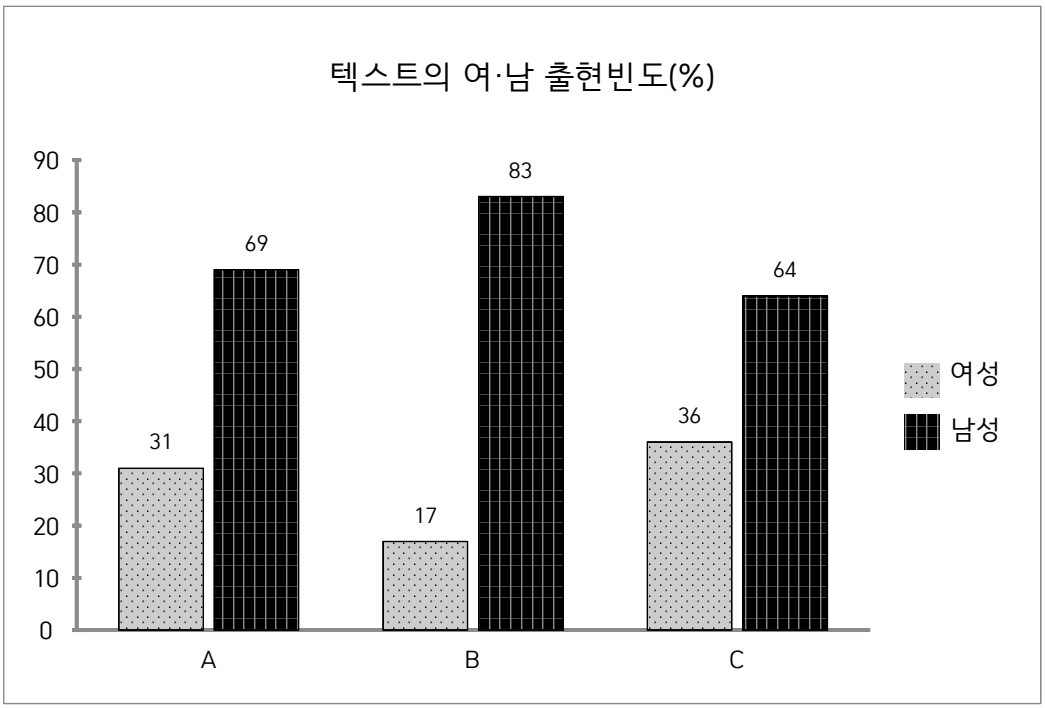


그림 2.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

A, B, C 교과서를 각각 분석해서 비교해 본 결과, 교과서 속 텍스트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가시성은 시각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B교과서의 경우 남성 출현빈도가 80%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교과서들의 경우에도 수치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의 결과, A교과서 속 텍스트에서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이 총 5회 사용되어 약 31%의 출현빈도를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총 11회 사용되어 약 69%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한편, 텍스트에서의 남성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B교과서에서는 여성 관련 용어는 단 3회만 사용되어 17%의 출현빈도를 보인 반면, 남성 관련 용어는 15차례나 쓰여 83%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C교과서에서는 여성 관련 용어가 총 8회 사용되어 36%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남성 관련 용어는 총 14회 사용되어 64%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표 2> 텍스트의 여·남 출현빈도

단위: 명, (%)

교과서	여성	남성
A	5(31)	11(69)
B	3(17)	15(83)
C	8(36)	14(64)
계	16(29)	40(71)

* 위의 수치들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현하였음.

세 교과서 분석의 결과로 얻은 분석 값들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교과서 속 텍스트 자료에서의 남성 편향성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텍스트 자료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의 출현빈도는 29%로,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이름의 출현빈도인 71%의 40.8%밖에 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역할 비중

아래의 그림 3은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즉,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 속에 제시된 인물들의 태도 및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성(sex)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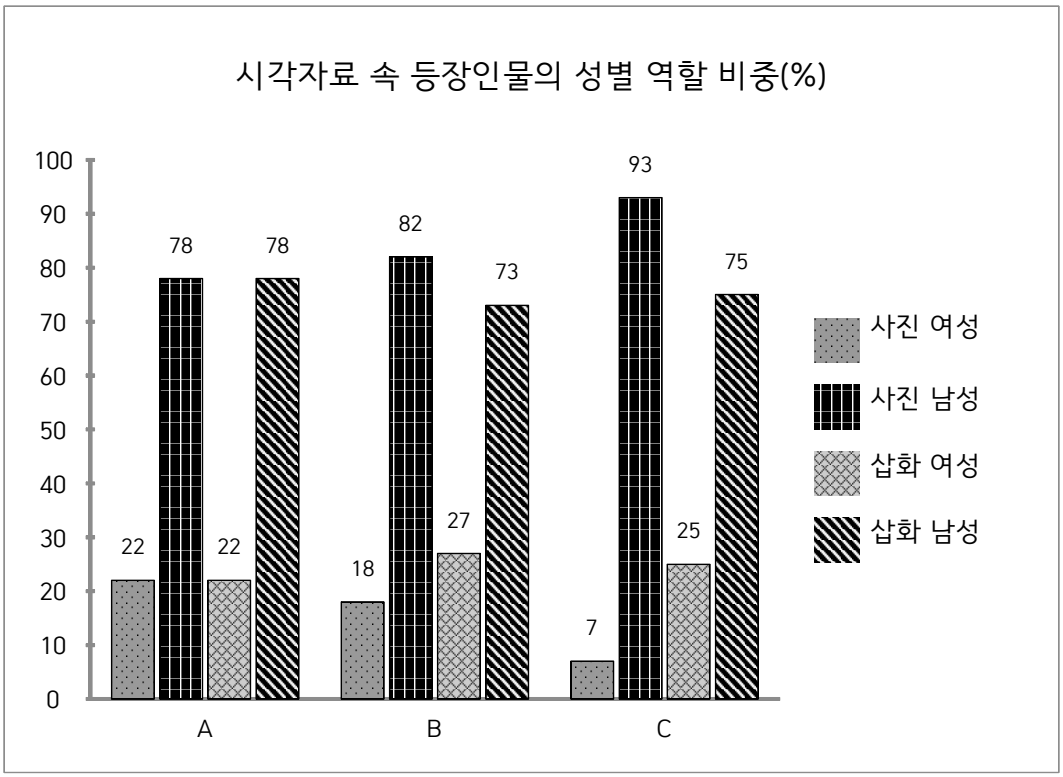


그림 3. 시각자료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분석에서는 사진, 삽화 및 텍스트에 특정한 성(Sex)만 제시된 경우 각각 여성 중심성 또는 남성 중심성으로 처리하였으며, 등장인물에 여·남이 혼재되어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Sex)을 기준으로 하여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진 속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15.7%인 반면,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84.3%로 매우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삽화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24.7%,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75.3%로 사진에서의 차이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있었다(위의 수치들은 A, B, C교과서 각각의 분석 결과 나온 수치들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한 성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을 나타낸 그림 3의 남성 편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에 여성이 등장하더라도, 여성은 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남성은 상황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성역할 고정적이고 성차별적인 견해가 교과서 속 자료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 4는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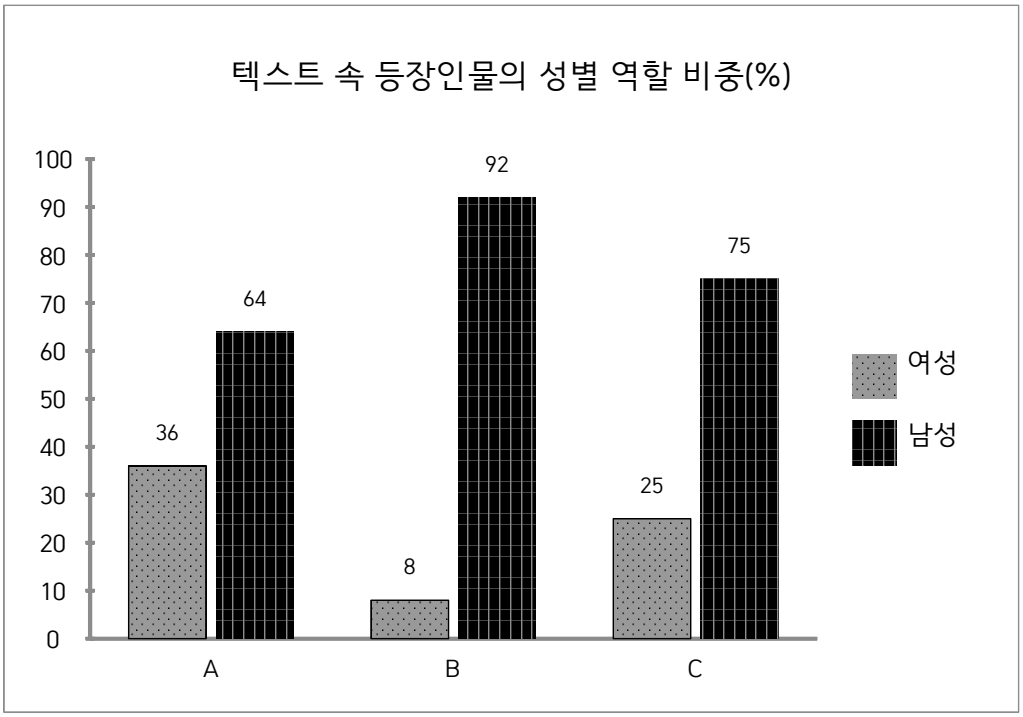


그림 4.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성별 역할 비중(%)

텍스트의 성별 역할 비중 역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남성 편향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중 특히 B 교과서는 92%의 비율을 보여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세 교과서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분석 값을 평균내서 비교해보면, 텍스트에서의 역할 비중은 여성 인물이 약 22.6%, 남성 인물이 약 77.3%의 비율을 보여 높은 남성 편향성이 나타났다.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남성 편향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삼촌네 집에 놀러간다거나, 삼촌이나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학생들이 주로 남자 어른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 속에 주로 남성 인물들이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따라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표현이며, 현실 반영 여부를 떠나서도 성 편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

1. 사진과 삽화에서 제시된 활동들은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가?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 정형성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성역할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과 삽화에 제시된 여·남 주인공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인공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들의 활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성(sex)에 따라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래의 <표 3>은 분석대상 교과서 A, B, C의 시각 자료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의 활동 내용을 성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교과서 속 시각 자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별 활동 내용

교과서	여성	남성
A	친구와 차타고 여행 떠나기, 일기 예보하기, 석양 감상하기, 섬유 공장에서 일하기, 낙타 타고 여행하기, 천연고무 채취하기, 치즈 만들기, 포도 재배하기, 아마존 관광하기, 해먹에서 낮잠 자기, 승마 체험하기, 머드축제 즐기기, 사진 찍기(모델), 사하라사막 일주하기, 나무 심기,	홀로 배낭여행가기, 말 타기, 비행기 조종하기, 자전거로 서울-대전-광주 일주하기, 잠자기, TV에서 축구경기 관람하기, sun bed에 누워 일광욕하기, 스키타기, 눈사람 만들기, 서핑하기, 산타클로스 분장하기, 수련회 코스를 컴퓨터(지도)로 검색하기,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쟁기질하기, 책 읽기, 화훼농업하기, 벼농사하기, 양치기, 열대우림 개발하기, 낙타 타고 사막 횡단하기, 낙타 타고 여행하기, 스콜이 내리는 와중에 축구하기, 원주민의 인사말 전해주기, 열대기후 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노력하기, 아이 안고 있기,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위하기(히잡 사용 관련), 물 긷기 - 지진 시: 부상자 구조하기	역으로 여행가기, 해먹에 누워 있기, 화전 농업하기, 소 방목하기, 이글루 만들기, 바다표범 사냥하기, 눈썰매 끌기, 스노모빌 타기, 지도 보고 길 찾기, 자동차 운전하기, 망원경으로 경치 감상하기, 아마존 관광하기, 승마 체험하기, 낙타타고 사하라사막 여행하기, 용암 사진 찍기, 머드 축제 즐기기, 사진 찍어주기, 암벽등반하기, 사하라사막 일주하기, 유황 광산에서 작업하기, 뉴스 보도하기(기자),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노력하기, 등산가기, 뉴스 보도하기(앵커), 콘서트 열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동하기,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기,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신대륙 발견, 체스 게임 하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조깅하기, 실업자, 강도(가방 탈취), 래프팅 대회 참여 - 지진이 났을 때: 가스 밸브 잠그기, 부상자 구조하기, 대피하기, 지진 속보 듣기, 단수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물품 준비하기
B	전화하기, 식당가기, GIS 이용하여 정보 출력하기, 천연고무 채취하기, 배타고 빙하 관광하기, 축제에서 춤추기, 래프팅 하기, blanket toss(이누이트의 놀이)하기, 청소기 돌리기, 작품 감상하기, 아이 안고 있기, 자원봉사하기, 출퇴근하기, 쇼핑하기, 영화 관람하기, 답사가기	망원경 들고 설명하기, 수박을 보면서 기준선 고민하기(본초자오선 관련 논의), 부채질하기, 스키타기, 비행기타고 LA로 출장가기, 축구하기, TV로 축구경기 시청하기, 출근하기, 등교하기, 농구하기, 무인도에 표류한 후 살아가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스마트 폰의 GIS 및 GPS 기능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하기(길 찾기, 피자가게 입지 선정하기, 맛집 찾기, 날씨 알아보기 등), 등산가기, 자전거 타기, 벼농사하기, 우유수레 끌기, 흙장난하기, 맨 손으로 나무 오르기, 화전 농업하기, 천연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무 채취하기, 햄버거 먹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말라하기, 베두인 족 의복을 착용하고 대화나누기, 낙타 끌고 이동하기, 우유 마시기(유목민), 야시장에서 음식 팔기, 가축시장에서 가축 팔기, 감자재배하기, 스노모빌타고 사냥 나가기, blanket toss(이누이트의 놀이)하기, 얼음 낚시하기, 배타고 빙하 관광하기, 사막에서 여행하기, 사막 탈출하기, 사바나 관광하기, 낮잠 자기, 컴퓨터로 펜팔 보내기, 스키타기, 축제에서 춤추기, 코끼리 타기, 래프팅하기, 포도 재배하기, 기우제 지내기, 작품 감상하기, 유모차 끌기(프랑스인), 출퇴근하기, 쇼핑하기, 영화 관람하기, 언덕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 보기
C	삼촌 댁(호주)으로 놀러 가기, 아이스크림 먹기, 하회마을에 가는 길 물어보기(할머니가 손자에게), GIS 이용해서 관공서 입지 선정하기, 스마트폰 지도 어플로 길 찾기, 이삿짐 나르기, 이삭줍기, 아침운동하기, 아이 돌보기, 게르 설치하기, 사진 찍기(모델), 윈터 카니발에서 스노 배스하기, 트래킹하기, 보령 머드 축제 즐기기, 해운대 모래 축제 즐기기, 나무심기, 가뭄 시 물 공급받기, 벼농사하기, 토론 패널로 참여하기(여성 대표, 정부 관계자)	유리창에 선을 그어 여자 친구에게 본인의 집 위치 가르쳐주기,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러시아에서 호주로 여행가기, 영화 찍으러 호주로 떠나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 축구경기 관람하기, 축구하기, 아이스크림 먹기, LA와 인도에서 각각 일 분담해서 처리하기(시차 설명 위해 사용), 눈싸움하기,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할머니에게 하회마을 위치 알려주기,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를 이용하여 할머니 모셔다주기,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교통 체계 분석하기, GIS 이용해서 관공서 입지 선정하기, 내비게이션 조작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장 빠른 길 찾기, 정류장의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활용하기, 벼농사하기, 혼합농업 하기, 낙농업하기, 철광석 광산에서 작업하기, 이삿짐 나르기, 축구하다 스콜 피하기, 밭 일구기, 화살을 이용해 사냥하기, 천연고무 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지진 시: 구급약품 챙기기, 환자 이마에 손 짚기, 대피하기, 환기시키기 - 태풍 시: 비상 연락처 확인하기, 구급약품 챙기기	취하기, 화전농업 하기, 나무베기, 악어 사냥하기, 사막에서 낙타 타고 이동하기(대상), 게르 설치하기, 말 목축하기(몽골족), 사진 찍어주기, 윈터 카니발에서 스노배스 하기, 영화 관람하기, 트래킹하기, 용암 촬영하기, 보령 머드 축제 즐기기, 해운대 모래 축제 즐기기, 나무심기,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 참여 및 진행하기, 가뭄 시 물 공급받기, 양 사육하기, 공장에서 일하기(외국인 근로자), 취업원서 작성하기(노인), 토론 진행하기, 토론 패널로 참여하기(노인 대표), 자동차 생산하기, 자동차 운전하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자전거 타기 - 지진 발생 시: 물건 치우기, 대피 장소 파악하기, 지붕 점검하기, 사람들 대피시키기, 대피하기, 부상자 부축하기, 안전점검하기, 대피자들에게 안내하기 - 태풍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비상식량 준비, 태풍 대비 위해 지붕 점검하기, 축대와 담장 점검하기 - 폭설 시: 무너진 비닐하우스 치우기, 제설작업하기, 자동차 점검하기, 비닐하우스 점검하기

일단, <표 3>에서 확연히 보이는 차이는 교과서 속 여성 인물들이 하는 활동이 남성 인물들이 하는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A, B, C 교과서에서 재현된 인물들의 활동을 성별(sex)로 구분해 보면,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활동은 총 63회, 남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활동은 총 184회 나타난다. 즉,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되고 있는 활동의 개수는 남성의 것에 비해 대략 1/3의 비율을 보인다. 교과서 속 여성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론 Ⅲ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교과서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남성 등장인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게 등장한다. 따라서 혹자는 등장하는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이 수행하는 활동 역시 그 범위가 좁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여성과 남성의 활동은 단순한 활동의 양과 범위의 차이가 아니라, 성 정형적이고 성역할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위의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과서 속에서 남성 인물들은 화산이 분출하여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용암의 사진을 찍고, 열대우림으로 관광을 가며, 암벽 등반을 한다. 이 외에도 서핑을 하고, 등산을 가며, 스키를 타기도 한다. 더운 여름에는 선배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즐기는 여성 인물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파도를 찾아가며 서핑을 하고, 스키 타기를 즐기며, 암벽 등반을 하고,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해 출사를 나갈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해변으로 나가 일광욕을 즐기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여가를 즐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이다[12].

혹자는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 '너무 진부한 이야기다', '(아직도)성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거나,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성차별적인)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교과서에서만 그런 식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냐'와 같은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교과서 속 인물들

12) 물론, 현실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포츠 및 레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2014년 통계청이 실시한 '성, 연령, 행동분류별 여가활동시간 조사'의 결과, 10대(10~19세) 여성과 남성은 각 행동분류별 여가활동시간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주행동의 요일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여가시간에 활용하는 총 시간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총 3시간 49분, 남성은 총 4시간 31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요일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에 10분을, 남성은 2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성들이 서핑하기나 스키타기와 같은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여성들은 일부 남성들 보다 더 훌륭하게 이러한 활동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본 연구자가 하고 싶은 말은, '현실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미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아직도 왜 이런 것을 반영 못하는가?'가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 이러한 사실이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활동이 성차별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재현된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여성이 상황을 이끌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주된 역할을 맡는 반면, 남성은 소극적인 자세로 부수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재현되는 사례를 찾아보려 한 것이다. 이는, 기존과 반대되는 재현의 사례를 보고 불편함과 낯설음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재현이 잘못되어 왔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된 3종의 교과서 중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복하여 인물의 활동을 재현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현실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교과서 속에서 여·남 인물을 재현해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물을 재현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 속 차별적 재현의 방식과 같이, 현실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재현되곤 한다. 잠시 현실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암벽등반 의류 회사인 'Outdoor Research'는 GQ라는 잡지에서 2016년 9월에 공개한 화보가 매우 성차별적임을 느끼고 이를 패러디하기 위한 화보 촬영을 했다. 미국의 '아웃도어 여성연합'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문제의 GQ화보는 3명의 '암벽등반 전문가'와 2명의 '귀염둥이들'이 떠나는 암벽등반 여정을 화보에 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벽등반을 하는 전문가로 표현된 3명은 전부 남성이었고, 이들이 암벽등반을 할 때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거나, 상의를 탈의 한 채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고 있는 '귀염둥이' 2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러한 재현은 교과서 속에서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암벽등반인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화보에서 단지 여성을 '부수적인 존재, 암벽등반을 하는 남성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 혹은 모델'로만 사용하기 위해 섭외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재현이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상의를 탈의한 채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웃는 것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한다거나, 본인의 힘만으로 암벽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활동들 말이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세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남성들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존재로서 재현되는 것은 성차별적이다. 여성들은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존재'나 '배경'이 아니다. 그저 남성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아래의 그림 5, 그림 6에 제시된 화보는 GQ의 화보와 이를 패러디한 Outdoor Research의 화보이다. 그림 5에 제시된 GQ의 화보에서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은 모두 남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여성이다. 이 화보는 '암벽등반'에 관한 화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화보에서 여성 인물들은 '배경' 역할만을 한다.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남성 인물들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은 이를 패러디한 Outdoor Research의 화보이다. 이 화보에서는 맨손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인물 세 명은 모두 여성이고, 바위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인물 두 명은 모두 남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6에서 제시된 화보 외에도, Outdoor Research의 화보에서는 남성 인물이 상의를 탈의한 채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웃고, 달리는 차 안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암벽등반에 관한 화보에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의아하지만, 이는 모두 GQ의 화보에 실린 장면들을 패러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쌩뚱맞게 옷을 벗고 등장하는 남성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의 화보가 얼마나 주제와 벗어난 장면들을 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여성 인물이 할 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남성 인물이 똑같은 포즈를 취했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해당 사진이 성차별적이라는 의미이며 우리가 그만큼 성차별적 재현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다.

* 본 내용은 The Huffington Post Korea에 2016년 10월 16일에 실린 기사 "암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기사의 전문과 보다 많은 사진은 본 연구의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 GQ의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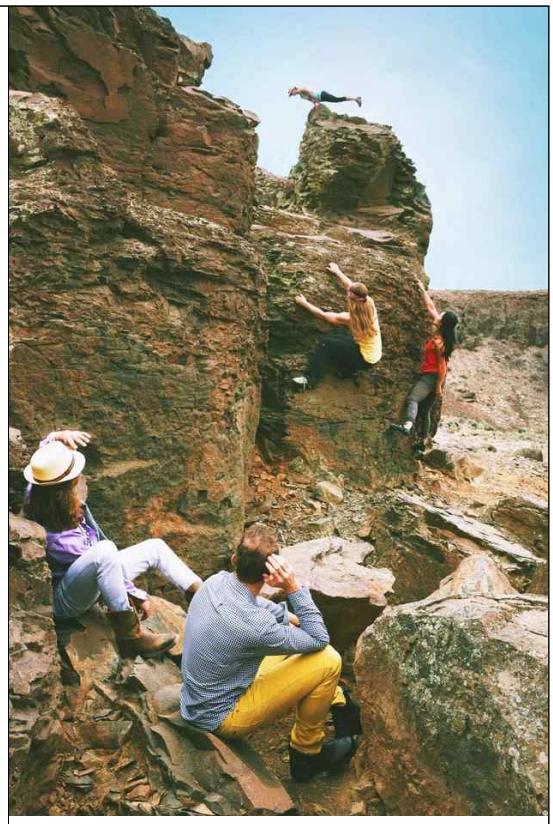


그림 6. Outdoor Research의 화보

사실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서 집필 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성 평등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량적으로는 여성의 출현 배경이 다양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들은 너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고, 고정관념화된 모습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는 각 성별(sex)로 제시된 활동의 성격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여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남성의 활동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 반면, 남성 인물은 배낭을 지고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또한, 여성 인물은 주로 사진 속 모델이 되고 남성 인물이 사진을 찍는 역할로 제시되며, 사막 여행을 하면서 낙타를 탈 때에도 낙타의 앞쪽에는 남성 인물이, 뒤쪽에는 여성 인물이 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 인물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이를 돌보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할로 한 차례 이상씩 묘사되었으나,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단 한 차례 유모차를 끄는 남성 인물과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 인물이 제시되었다. 또한 집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인물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삽화는 가사 일과는 무관한 사례(도시화의 요인)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간혹 다친 사람을 간호해주거나 날씨 예보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일 들이다.

한편, 교과서 속에서도 여행을 떠나거나 래프팅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여성들의 모습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성과 함께 단체로 제시되어 있어서 옷의 형태나 머리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만 성별을 확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은 비율로 남성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7'은 B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으로, 여·남 주인공들이 래프팅을 즐기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그러나 래프팅 교관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인물(6명)이 남성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여성 인물은 단 2명만 보인다.

그림 7 . B교과서,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자료들을 접하는 학생들은 은연중에 '여성의 활동'과 '남성의 활동'을 구분지어 생각하게 될 경향이 크고, 이러한 자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히 여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거나 제한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13]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여성들이 주로 사적 영역에서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사 일은 여성의 몫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며, 따라서 남성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자신 몫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 성격, 특성, 능력 등을 파악할 때 '성별'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가부장적인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는 비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없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는 후자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아내,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非)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은 교과서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한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여전히 인권친화적이지 못하다. 여전히 성 정형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교과서의 내용 요소들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13) 성역할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화가 남녀에게 다른 특기를 개발하게 하므로 고용주는 특정한 일에 남성이 적합할지 여성이 적합할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선호도에 따르게 된다. 즉, 성역할 사회화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수요 측면의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삽화에서 제시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처한 상황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교과서 속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상황에 마주한다. 특히, 사회 교과서 내 지리 영역에 재현되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GIS와 GPS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길을 찾거나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하나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태도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대조된다.

새로운 사물을 접하거나 대할 때,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은 전혀 다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인물들은 대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성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성 인물들은 대개 여성 인물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끌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 속에는 다양한 인물과 상황이 제시되지만, 이러한 패턴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이라는 전제 하에 끝없이 반복된다. 재미있는 점은 교과서 속에서 이러한 패턴과 비슷하게 인물 간의 관계가 전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어른과 아이(학생)와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어른은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모르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아이는 주로 그러한 어른의 말에 동조하거나 어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속에 재현되는 인물들은 '성인-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놓고, 이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속에는 성인이 아닌 비(非)성인을 미숙한 존재로 치부하고 가르침을 줘야한다는 연령주의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비가시화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학습자 및 사회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3종의 교과서 중 단 1종의 교과서에서 딱 한 차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 등장했으며, 이 외의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럼 이제부터 교과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러한 사례와 현실은 얼마나 닮아있는지도 살펴보자.

1) 삽화 속 여성과 남성의 역할

(1) 소극적인 여성 인물과 적극적인 남성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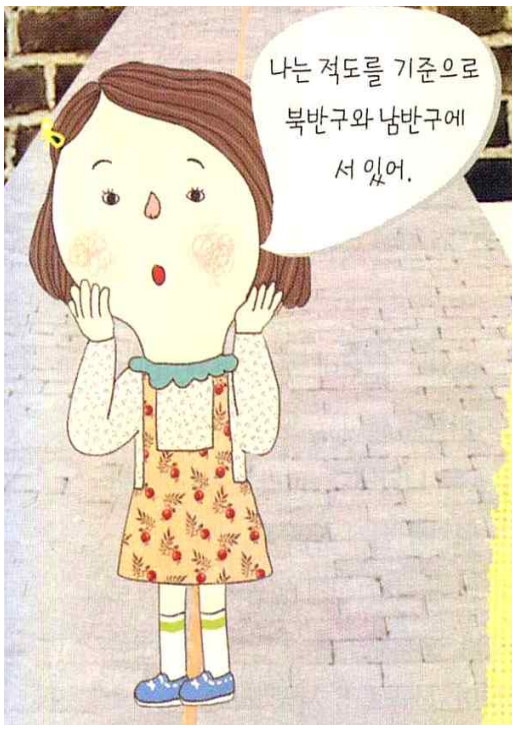


그림 8.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여성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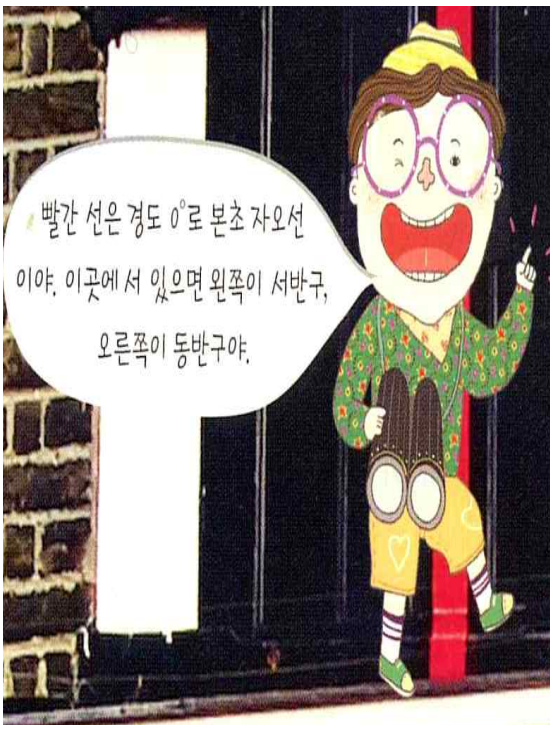


그림 9. B교과서 1단원 도입 삽화 속 남성 인물

위의 그림 8, 그림 9는 B교과서의 1단원 도입 부분에 제시된 삽화 중 인물 부분만을 제시한 것이다. 두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는 위의 삽화는 새로운 대단원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단원이 전개 될 때마다,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먼저, 2단원의 도입 삽화를 보면, 여학생은 얼굴에 꽃받침을 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다리 한 쪽을 구부린 채 서 있다.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한 표정과 몸짓이다. 그리고는 남학생에게 “와, 네가 사는 마을은 그림책 속에 나오는 곳 같아”라며 감탄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이에, 남학생은 확성기에 대고 “우리 마을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야”라며 당당한 표정과 자세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0. B교과서 2단원 도입 삽화

이어서 3단원의 도입 삽화를 살펴보자.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다룬 3단원에서는 툰드라 지역의 경관이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여학생은 2단원에서와 똑같은 표정과 포즈를 취한 채, “툰드라에도 여름이 있네?”라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역시 2단원에서와 같은 표정과 포즈로 “물론이야. 기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영상으로 오르는 짧은 여름에는 순록의 먹이가 되는 이끼류가 주로 자라지.” 라고 말하면서 툰드라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숙한 여학생에게 툰드라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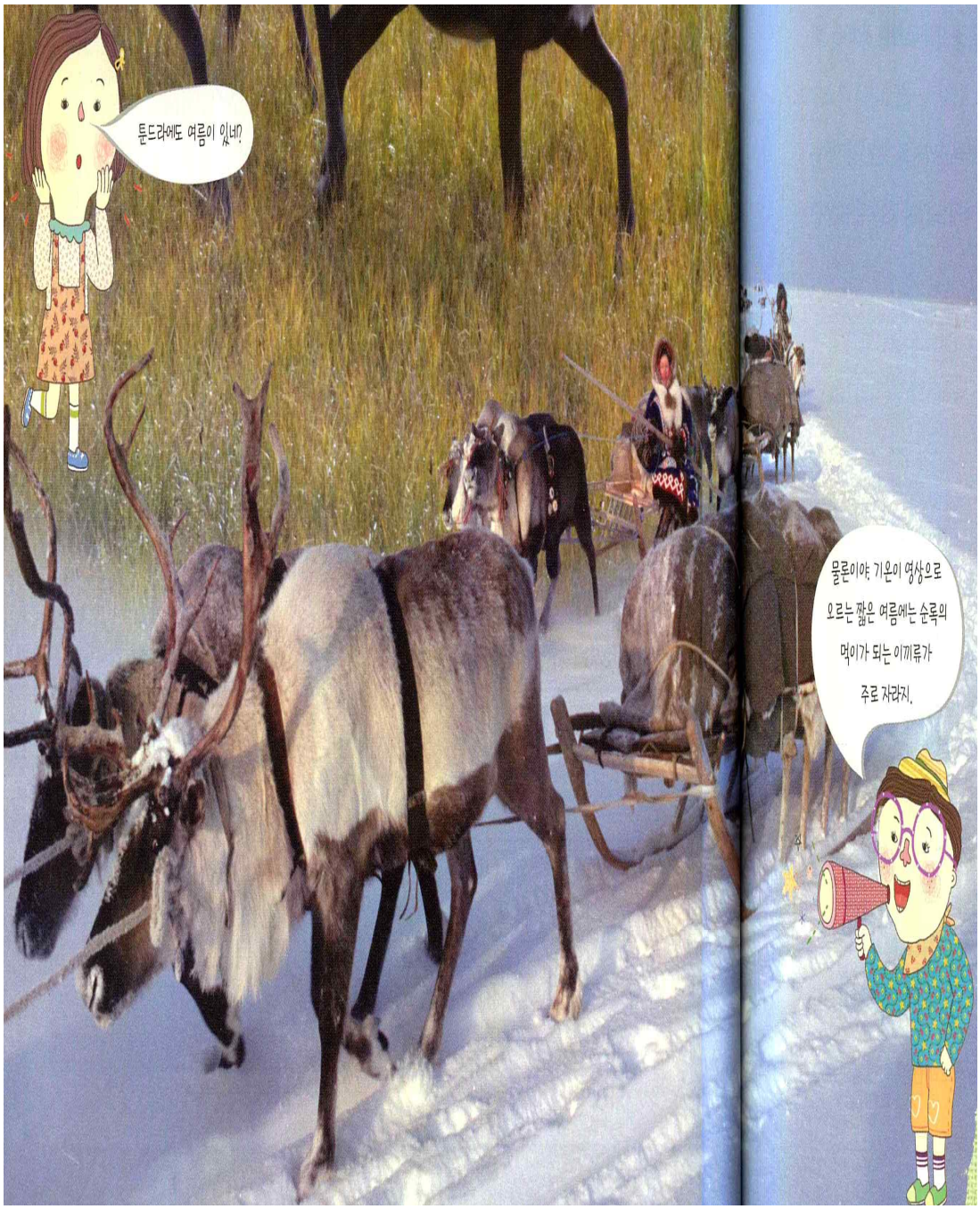


그림 11. B교과서 3단원 도입 삽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번에는 5단원으로 가보자. 5단원은 자연재해와 인간생활을 다루는 단원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앞 장에서와 똑같은 그 포즈를 취한 채, “터키에서는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할까?”라며 질문을 하고 있다. 저렇게 입을 오므려 벌린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다. 또, 여성 등장인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굳이 왜 저런 모양으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것인지도 의아하다. 한편, 이에 대해 남학생은 시종일관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확성기에 대고 “터키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야.”라며 답변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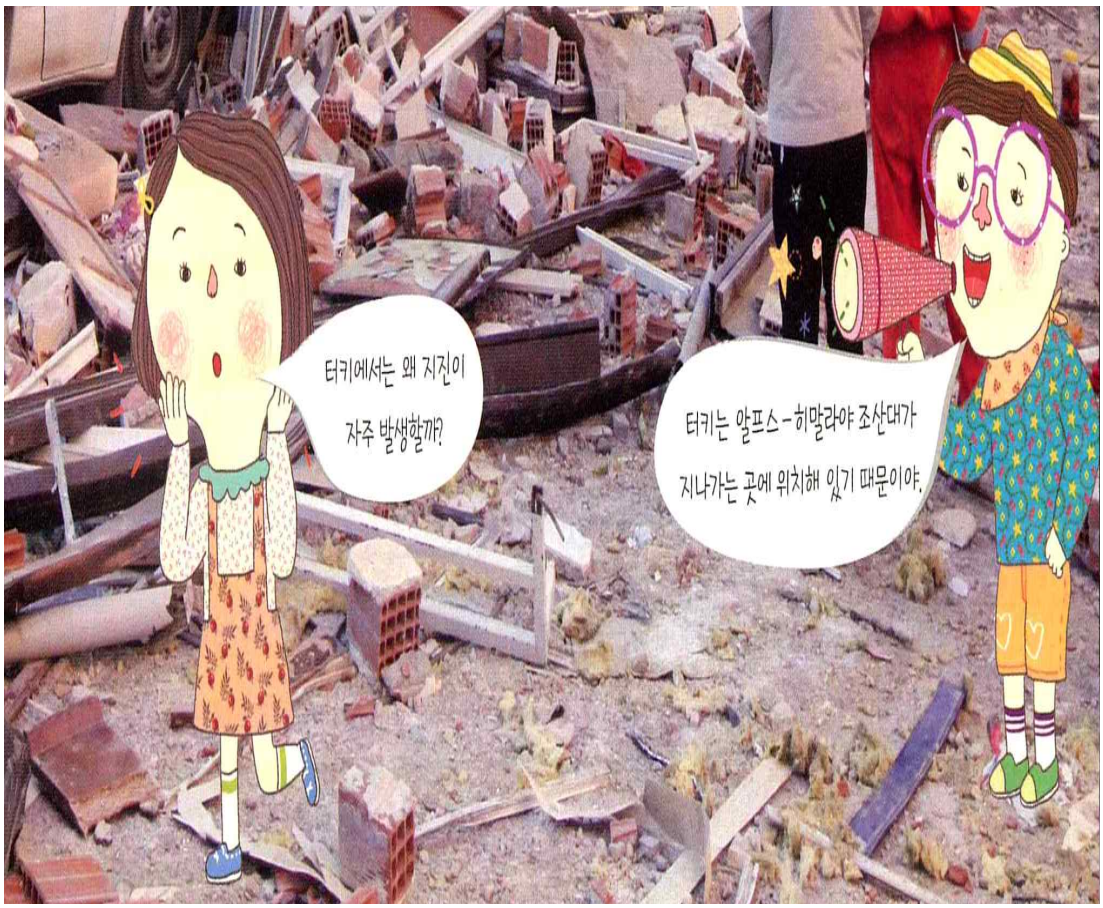


그림 12. B교과서 5단원 도입 삽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단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도시에 대해 공부하는 7단원에서는 남학생이 먼저, “도심은 도시의 중심부로 관공서, 금융 기관, 기업의 본사, 백화점 등이 모여 있는 곳이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에 대해 여학생은 “아,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구나.”라고 대답하고 있다. 드디어 여학생의 이상한 자세는 바뀌었지만, 인물들의 대화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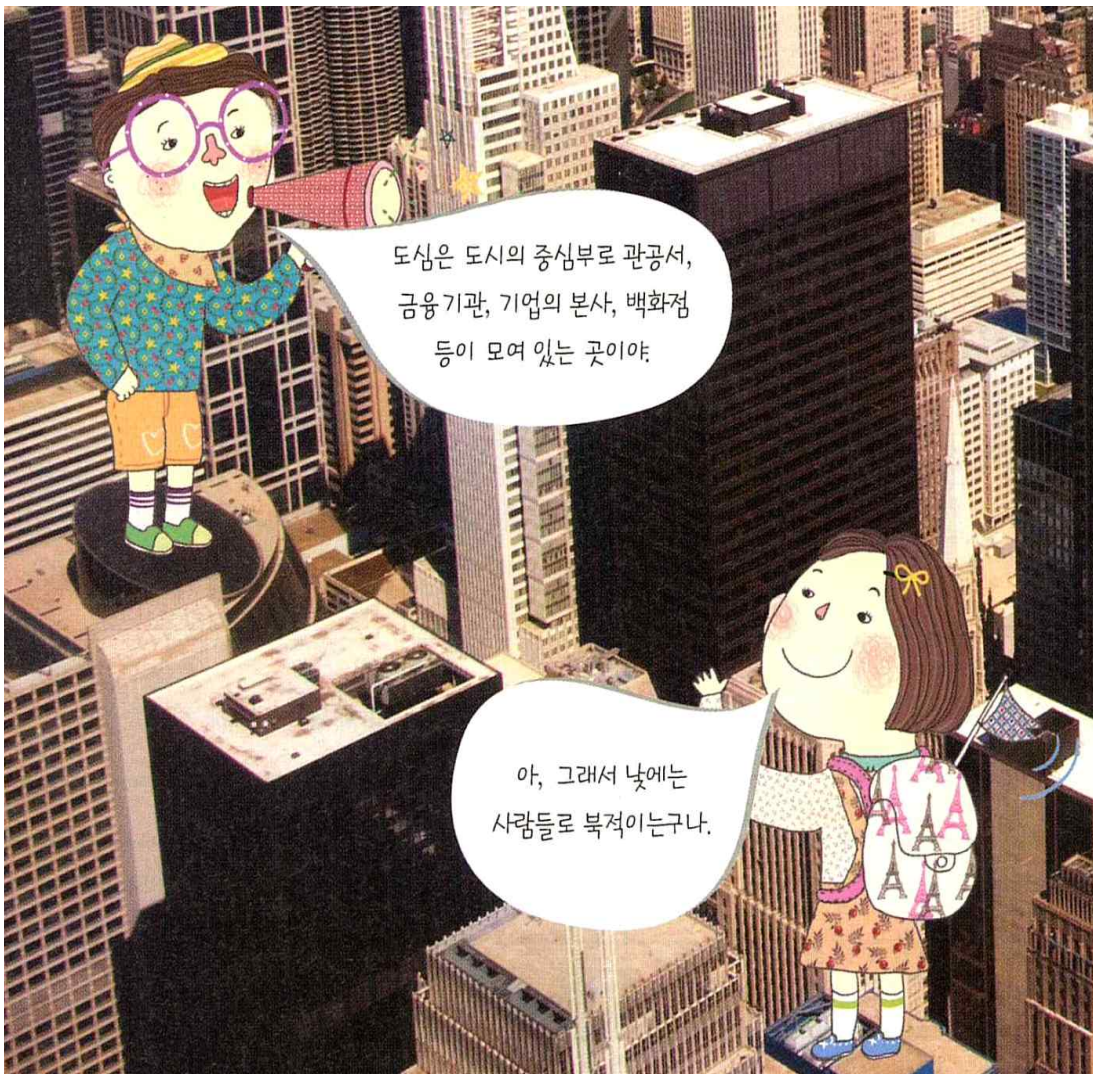


그림 13. B교과서 7단원 도입 삽화

B교과서의 대단원 도입 삽화에서 여학생은 시종일관 어리숙한 표정과 태도, 몸짓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거나, 설명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당당한 자세로 여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여학생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으며, 발화의 내용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표현'이거나 '경험에 근거한 말하기'이다[14]. 심지어 손으로 양쪽 볼을 감싸 안은 채 일명 '꽃받침' 포즈를 하고, 볼은 상기된 채, 입을 오므려 깜짝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리 한쪽을 들고 있는 여학생의 포즈는 괴상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고, 여전히 '여성스럽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포즈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담지한 재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여자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고정관념화된 여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정관념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벗어난 바람직한 재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교과서를 비롯한 매체에서는 각 성별(sex)에 따른 '인간[15]'을 어떻게 재현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는 '성별'이 아니라, '인간'이다. 재현하는 인물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똑같은 '인간'일 뿐이며,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인물을 재현해야 한다.

하지만 성별(sex)에 따라 고정관념화 되지 않은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재현의 사례를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재현의 모습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14) 본 연구자는 '정보 전달, 사상(事象)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경험에 근거한 말하기'나 '정서적인 표현'보다 더 좋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단원 도입부분에 제시된 삽화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단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흥미 유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대단원 도입 삽화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새로운 단원에서 배울 내용(정보)을 제공해주는 인물'일 것이다. 이러한 도입 삽화에서 반복적으로 정보 제공자는 남성 인물로만 재현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반응을 하거나 낯선 곳에 대한 감상의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인물은 여성으로만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은 성차별적이다.

15)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면, '여성', '남성', '간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서 '간성'이란, XO, XXY등 여성과 남성에 속하지 않는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생식기는 남성인데 난소가 있는 등 전형적인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별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스퍼에서는 2016년 '여자답게(#Like A Girl)'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는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림 14. 위스퍼 #여자답게 #LikeAGirl 캠페인 영상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인터뷰어(interviewer)는 인터뷰이(interviewee)에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즉시 행동해달라'고 요구한 뒤, '여자답게-달려보아라, 싸워보아라, 던져보아라'를 요구한다. 인터뷰어의 요청을 들은 인터뷰이들(성인 여성, 성인 남성, 남자 아동)은 하나같이 쑥스러워하며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그들의 재현 속 여성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잡느라 제대로 달리지 못하거나, 다리를 바깥 방향으로 구부린 이상한 포즈로 달리기를 한다. 꼬집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도 쑥스러워 하느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거나, 힘이 없어서 제대로 무언가를 던지지도 못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청을 들은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평소 습관대로 행동을 취한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달리고, 싸우고, 던지는 제스처를 취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라는 동안 '여자답게'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여자답게' 행동하도록 요구받으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받으며 자라난 여성들은 고정관념화된 '여성성' 속에 자신을 가두고 행동에 제한을 두게 된다.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인 필자는 '여자답게 걷고, 여자답게 말하며, 여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이유는 필자가 생물학적인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나의 걸음걸이나 말투가 이상하거나, 내 생각이나 행동이 소극적이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의 뜻은 그저 '나는 나답다'라는 의미일 뿐이고, 그런 의미여야만 한다.

우리는 '여자답게 하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제약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재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TV, 인터넷 페이지 등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접하는 매체라면 더더욱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고려를 해야만 한다. 즉, 앞에서 살펴본 '그림 8' ~ '그림 13'과 같은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한편, 위스퍼는 2016년 하반기에는 "여자답게 멈추지마(KEEP PLAYING #LIKE A GIRL)"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자이기에 운동을 그만둘 뻔 했지만,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한 여성들을 소개하며 '당신도 여자답게 멈추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영상 속 선수들은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해?"와 같은 무수한 말들을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행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가?[16] 우리는 성별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Nike에서도 2016년 여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다 다 딩(da da ding)'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인도

16)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가해지는 수많은 제약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솔직한 인터뷰를 보고 싶다면 위스퍼의 또 다른 캠페인 영상을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여자 아이들에게 한계를 정해주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자답게#물러서지마#위스퍼 캠페인 두 번째 영상, 링크: https://youtu.be/mp1TV25z66U.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출신의 멋진 '여성' 운동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광고로서, femvertising (feminism+advertising) 전략을 사용한 광고이다.

그림 15. Nike Da Da Ding 영상

이 광고 속에서 여성들은 앞 다투어 달리고, 힘을 겨루고 몸을 부딪혀가며 농구를 하고, 복싱을 한다. 또한 골목에 길게 걸려있는 빨래들 사이를 달리며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타이어를 허리에 매고 달리면서 훈련하며, 교복을 입고 백 텀블링을 하기도 한다. 하나같이 모두들 힘이 넘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다. 사실 이 영상을 본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소름 끼친다', '눈물이 날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성들이 이 영상에서처럼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재현된 사례를 접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복싱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도 괜찮다. 체력을 기르고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타이어를 허리에 매고 달리느라 땀이 나도 괜찮다. 운동을 하느라 다리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처가 나도, 머리가 헝크러져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그런 모습은 예쁘지 않다'와 '그런 행동들은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15에 제시된 나이키의 광고 영상에서처럼, 우리 교과서에서도 성별(sex)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들이 등장해야만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서 재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에게 저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남성들은 어떠할까? 남성들은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성역할 고정관념이 특히나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근거로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받는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동과 사고에 제약을 받는다.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인 포터(Tony Porter)는 TED 강연에서 "A Call To Men (남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이 강연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맨박스(Men Box)'를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는 '맨박스'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뜻한다. 즉, '남자는 강해야 하고, 약한 것들을 보호해줘야 하며,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않고, 언제나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와 같은 고정관념 말이다. 그는 본인의 자녀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맨박스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어린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왔을 때는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어주고, 울음을 달래기 위해 부드러운 말을 했던 반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울면서 아빠에게 왔을 때는 "(남자애가)왜 울고 있니?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네가 왜 우는지 설명해봐라, 니 방으로 가라, 울음을 그치고 남자처럼 굴어라"라고 요구했던 본인의 모습을 고백한다. 당시 그의 아들은 불과 다섯 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에게 '남자답게 굴 것'을 요구했다. (여자)아이처럼 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징대거나 감정에 젖어있지 말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과 울음을 참을 것을 요구했다. 불과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행동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남자도 울 수 있고,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남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남성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남성들이 보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신체적으로 강하거나 터프하지 못한, 겁이 많고 망치질을 잘 하지 못하며, 전구를 잘 갈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남성 개인들을 억압한다. 특정한 성(sex)으로 태어난 것과 그 사람의 능력, 성향, 가치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사회를 통해 구성되어질 뿐이다.

한편,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이어간다. 그는 "맨박스를 불편하게 여기는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안에서 결속감과 안도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삶 깊숙이 스며든 맨박스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 문제들은 남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곧장 여성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맨박스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없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맨박스로 인해 어느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요받아 온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체되어야만 한다. 성별은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여성' 혹은 '남성', 혹은 '간성'이기 전에 모두 같은 '인간'이다. '성별' 이 아닌 '인간'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러한 시각이 점차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재현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여·남의 역할

그림 16. A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기술 활용 사례' 설명을 위한 삽화

위의 삽화는 3컷으로 이어진 이야기 삽화로서, A교과서의 '생각 열기' 부분에 쓰인 삽화이다. 해당 단원에서는 '다양한 지리 정보 기술'을 설명하면서, GIS(지리정보체계)의 이용과 활용, 버스 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의 길 안내 시스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의 첫 번째 삽화를 보면,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으며, 뒷 자석에는 아들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성 평등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어머니가 운전을 하는 것이 제시되는데[17], 중학생 대상 교과서 임에도 아직도 운전은 '남자-아버지'가 한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삽화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두 번째 삽화에서는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이에 대해 아들은 당황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달래며 "걱정마, 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위치를 설명 안 해도 바로 찾아와"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삽화에서는 이에 대해 신기함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과

17) 교육부(2015), 초등학교 사회 3-1, p.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런 아들을 보면서 흡족한 듯 미소를 짓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 삽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가?

삽화의 처음에 함께 재현되었던 어머니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멈추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리 정보 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들이 이에 대해 놀라고 있는 와중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사건의 전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대화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수룩하고 아직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아들에게 지리 정보 기술의 유용함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삽화에서 성차별주의와 연령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만약 이 삽화가 실제 상황이라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놀라서 차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든지 적어도 무언가 하나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현장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끼고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삽화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을 잊었나보다. 그리고 사실,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나 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 비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장 심한 차별은 '비가시화'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기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전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상대방이 '어수룩하고 잘 모르는 존재'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 가까이에 깊숙이 자리한 차별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성 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자.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거리를 다니다가 장애인을 마주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고개를 돌려 그 장애인을 쳐다본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낯설고 의아하기 때문에. 분명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가시화 한다. 그렇기 때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우리는 장애인이 낯설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농구장에서 농구를 할 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등 일상생활의 각 부분들에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거의 접하지 않는다. 이 뿐인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TV 속 다양한 프로그램들, 잡지와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들 속에서 장애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동성애자와 같은 성 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분명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이 오늘 점심을 같이 먹은 그 친구가 사실은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이다.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이성애 커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예컨대, '이성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사연 올리기' 같은 이벤트 말이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도 이성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글인 여성에게 이렇게 묻는다. "남자친구는 왜 안 만들어? 소개팅 해줄까"라고. 이는 정말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사실이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다. 하나의 인격체가 다른 대상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것 자체에 이미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는 것이며, 차별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가시화'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해당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고, 성 소수자들이 있고, 아동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인 그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위급상황 시 인물 묘사: 지진, 태풍 등 위급상황 시 여·남의 역할

아래의 삽화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응급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주는 삽화이다.

그림 17. C교과서에 재현된 지진 대처 요령

그런데 등장인물 중 대다수(총 30명 중 22명, 73%)는 남성 인물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도 남성 인물이다. 남성 인물이 지진 발생 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대피 장소를 정하고, 집과 주변의 지반이 안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지 점검을 하는 동안 여성 인물은 그저 구급약품을 챙기는 것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여성 인물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나마도 여성 인물이 하는 일로 묘사된 '구급약품 챙기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묘사되어 왔던, '돌봄'과 관련된 일이다.

다음 삽화에서는 지진 발생 중에 해야 할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남성 인물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 인물과 노인들은 그저 몸을 대피하는 것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지진 발생 후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에서도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남성 인물이 사람들이 대피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며, 무너진 집에서 다친 사람을 부축해서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가정의 전기, 수도 및 가스관을 점검하는 인물도 남성이다. 이 때 여성 인물은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를 짚어 체온을 확인하는 등 전형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역할로 재현되고 있다. 남성 인물이 전기나 가스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는 것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작업으로 판단되기에, 이것 역시 성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된 삽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위급상황을 다루는 다른 삽화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아래의 삽화는 C교과서에 재현된 태풍 대처 요령이다.

그림 18. C교과서에 재현된 태풍 대처 요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서도 여성 인물은 비상연락처를 파악하고 구급약품을 챙기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남성 인물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며, 지붕과 축대, 담장 등을 미리 점검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위급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그림 17과 그림 18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았던 다른 삽화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성 인물은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남성 인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이미 지적 했듯이,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표현된 것은 대개 '돌봄 노동'의 형태를 띤 활동으로써,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조차, 인물들은 고정관념화된 성역할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여자다운 것', '남자다운 것'의 신화는 매우 강력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곤 한다. 하지만 응급 상황을 표현한 삽화에서조차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과 '남성에게 어울리는 일'이 나누어 고려되고 있고, 이는 이 자료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습득될 것이다. 우리는 일생을 거쳐 진행되는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각각의 성에 맞는 역할과 태도를 담지하고 있으며(이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재생산된다), 이는 개인의 활동과 발전 가능성을 제약한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구급차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 여성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타박하겠는가? 평생을 그렇게 학습되어 온 -강요받아 온- 여성에게(대피로 확보 및 대피 안내나 부상자 구조가 아니라, 구급상자를 챙기고 아픈 이들을 부축하는 모습만을 자신의 역할이라 교육받아왔던 여성에게) '응급 상황이니 알아서 기지를 발휘해야지'라며 다그치거나 '이건 실제 상황이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라거나 '이러니 여자는 안 돼'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교과서 속 인물 묘사의 특징

(1) 교과서 속 젊은 여성과 중년의 남성

아래의 사례는 C교과서 '사례 톡! 톡!' 부분에 제시된 삽화이다. 삽화를 살펴보면 관공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2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등장 비율을 양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성 등장인물이 다양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삽화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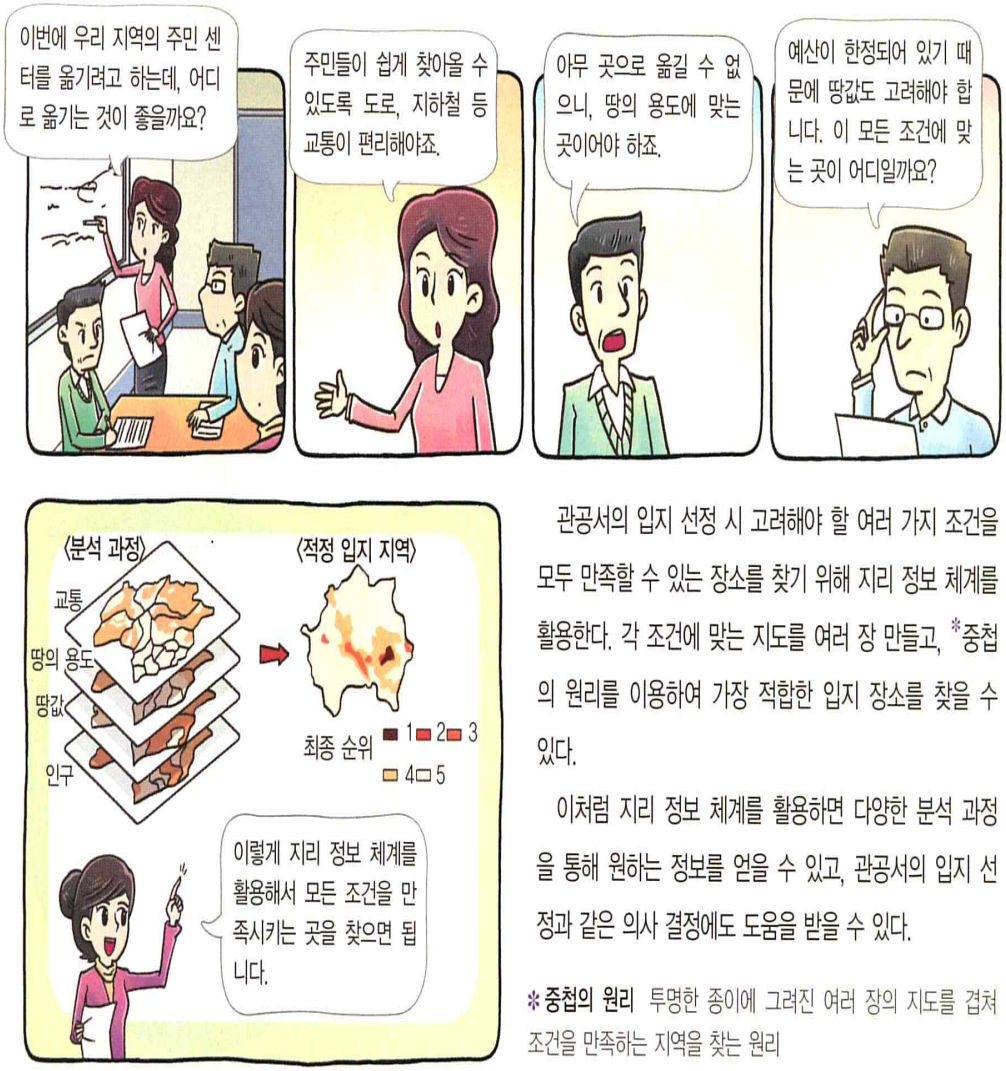


그림 19. C교과서에 재현된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한 관공서 입지 선정' 과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것은 첫째, 공적 영역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여성은 대게 '젊은 여성'만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이 때 함께 등장하는 남성은 대개 '중년의 남성'이라는 점이다.[18]

사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게 젊은 인물만이 등장한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남성은 젊은 여성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종종 재현되는 반면, 중년의 여성이 젊은 남성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는 중년의 남성이 등장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20대 중후반의, 미혼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비단 이 삽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재현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등장할 때면 항상 반복된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뉴스를 들 수 있다. 주요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대의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다. 그리고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남성 아나운서는 대체로 여성 아나운서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성이다. 만약 중년의 남성 아나운서를 뉴스의 메인으로 세우는 것이 이 남성이 경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면, 여성 아나운서는 어떤가? 젊어서부터 경력을 쌓아온 여성 아나운서들이 중년이 되면 더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 그들은 왜 뉴스에서 사라지는가?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젊은 여성만이 등장하고, 중년 여성은 비가시화되는 현상은 교과서와 현실이 꼭 닮아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시선 -항상 젊고 날씬하고, 아름다울 것[20]-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라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나이 등의 위계질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

18) 삽화 속 인물을 보면, 여성은 동그란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젊은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반면, 남성은 두 명 다 입가에 주름이 있는 중년의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

19) 이 또한 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중년과 노년 인물의 비가시화를 의미한다.

20) 여성용 화장품 광고들을 보면 하나같이 젊은 모델이 등장한다. 그런데 넘쳐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고 속에 등장하는 모델들도 하나같이 젊고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 주름 하나 없이 맑은 피부(모 화장품 광고의 문구를 인용하자면-'무결점 피부')를 가진 광고 모델들은 사실 40대 후반의 배우들이다(김OO, 이OO, 고OO 등). 노화라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화면 속에 등장하는 배우나 모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젊고, 날씬하고, 예쁘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은 "절정일 때 지켜라", "다시 처음 피부로", "보여주세요! 시간을 거스르는 힘"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마케팅을 한다. 이 문구들을 보면, 사회가 여성의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교과서 속 중년 여성

그림 19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이어가보자. 그림 19에서 중년여성은 비가시화 되고 있다. 즉, 교과서 속에서 중년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등장한다고 해도, 사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보수를 받으며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중년의 여성'은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신, 청소기를 돌리는 중년 여성이 등장한다. 간혹 교사로 재현되는 중년 여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교과서 속 젊은 여성들이 '기상캐스터, 간호사, 회사원' 등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왜 그럴까?

본 연구자는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인물 묘사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반영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재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현이 오히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중년 여성을 비가시화 하는 이러한 재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중년 여성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더 어울리며,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사적 영역 안에서의 '엄마'로 재현되는 우리 사회의 중년 여성들은 그 재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비난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녀?/ 운전을 해?/ 여자가 어딜.../ 여자가 감히..."와 같은 말들이다. 혹자는 '에이,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길거리로 나가면 심심찮게 들려온다.

'재현'이 그려내는 이미지가 곧 현실을 강요하고 만들어낸다는 '재현의 정치'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 보겠다.

본 연구자도 최근 부끄럽고 미안한 경험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였다. 그 때 모인 친구 중에는 출산이 임박한 친구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나면 무조건 복직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면 두 살일 본인의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겨우 두 살 밖에 안 된 아이를 시설에 맡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친구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심지어는 '계획에 없던 아이라서 아직 아이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와 같은 생각도 들었다. 입 밖으로 꺼내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친구를 탓하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뒤 순식간에 떠오른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이내 곧, 나는 엄청 부끄러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친구의 잘못이 뭐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친구가 고생하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갔고, 힘들게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는 그 친구 혼자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둘이서 책임져야할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탓이지, 그 친구의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무엇보다, 그 친구의 남편은 두 살짜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작스레 찾아온 몸의 변화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려왔던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만 했었다는 것을[21] 안다. 출산의 위험성, 출산의 고통과 출산 후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일들[22] 등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한 출산에 관한 일련의 정보들[23]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

21) 커피와 맥주, 이 외에도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의 섭취에 대한 제약,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한 제약, 행동거지 및 마음·태도에 대한 제약(태교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라). 심지어 출산일이 가까워오면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다리와 발에는 수차례 쥐가 나기도 하며, 배와 허벅지 살이 심하게 트는 등, 한 생명을 자신의 몸속에서 키우면서 여성의 몸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22)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고나면, 팅팅 부운 얼굴과 몸, 젖몸살로 인한 통증, 훗배앓이(임신 중 커진 자궁이 이전상태로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통증), 제왕절개 시 절개부위의 통증(훗배앓이와 합쳐지면 더 심해지고, 하루 8~10차례의 모유수유를 하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진물이 나오기도 한다), 오로(분만 후 나타나는 피가 섞인 심한 냄새의 질 분비물로 평균적으로 6~8주간 나온다. 따라서 산모는 출산 후 보통 2달간 산모용 패드(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 탈모, 산후 우울증, 복근의 가운데가 갈라지는 '복직근 이개'(출산 후 60~70% 정도만 회복됨) 등 사회에서, 교육에서 알려주지 않는 많은 출산 후 변화들이 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산모에 따라 임신 중독이나 소양증 등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한다.

23) 출산, 임신과 육아, 그리고 피임, 여성의 생리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임신과 출산은 아름다운 것', '육아는 힘들지만 아이는 그 모든 힘듦을 잊게 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는 아름답게 포장한 말들 외에,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지에서 오는 '무시와 하대', 즉,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겪는 과정이고, 예전에는 환경이 더 열악했었으니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인식, '가사노동과 육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미숙련 노동, 허드렛일' 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도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도 직결된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은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추가적인 일들을 더 해야만 한다. 성역할 노동이라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예컨대,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타서 내오기'와 '쌓여있는 물컵 씻기'와 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 친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재현의 정치이며, 재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항상 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여성, 아이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떠맡는 여성[24],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내는 여성[25], 장소와 상관없이 앞치마를 입은 채로 묘사되는 여성[26], 집 안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여성 등, 우리 사회는 여성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여성은 누구나 ‘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은 아이와 남편, 집을 돌봐야하기 때문에[27] 여성이 출산·양육·가사 일보다 본인의 경력을 쌓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열중하는 것

은 일들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이중 노동을 하기에, 오히려 저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화된다.

배려와 보살핌을 포함하는 ‘돌봄 노동’과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는 ‘감정 노동’이 중요한 노동 요소로 요구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들 노동의 특징이 어머니의 것을 닮은, 여성의 특성을 지닌 성별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24) 2016년, 한 NGO 단체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며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 해달라는 광고를 하면서, “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 광고 영상의 어디에서도 아이의 아빠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해하면서 눈물짓는 엄마의 모습과 뼈만 앙상하게 남아 힘겨워하는 아기의 모습만이 비춰졌다. 광고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엄마의 품을 떠납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엄마의 (육아)일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온다. 물론 자신의 아이가 굶주리는 것에 대해 엄마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항상 아빠는 비가시화 되는가? 그리고 기아로 인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그 1차 책임은 엄마가 아니라 사회에 있다. 모·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지원하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외에도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기아 아동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외면한 채, 그저 능력 없는 엄마를 만나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굶고 있다는 식의 재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표현 역시 문제가 많다. 그 아이는 엄마가 혼자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런 광고에서 “아이가 아빠의 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들어본 기억이 없으며, 만약 그런 광고 문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도대체 애 엄마가 뭘 한거야?”라는 식의 말들을 우리는 듣지 않는가.

25)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와 같은 워딩.

26) ‘2015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서 증정한 기념 손수건에는 올레길을 걷는 여러 인물들이 묘사되어있다. 그 중 한 여성 인물은 곱슬곱슬한 파마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심지어는 앞치마 까지 맨 상태로 올레길을 걷는 것으로 재현된다. 옆의 남성 인물들이 등산복을 입고 길을 걷고, 북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걷는 것과는 달리, 여성 인물들은 제주 해녀의 물질용 해녀복을 입고, 앞치마를 걸친 채 올레길을 걷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27) 2014년 20세 이상 남녀가 하루 중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혼인상태(미혼/기혼)별로 살펴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결과,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238분으로 기혼 남성의 53분, 미혼 여성의 63분, 미혼 남성의 28분보다 월등히 길게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기혼 남성의 4.5배에 해당한다. 한편,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평균적으로 가정관리에 189분, 가족 보살피기에 49분이 할애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관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정관리란,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하기, 의류관리, 집관리, 시장보기 등의 행동을 포함하고, 가족 보살피기는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이기적인 것이다.”와 같은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재현들은 우리의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곧 교과서에서 ‘공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중년 여성들’을 비가시화 하게끔 한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한 본 연구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재현은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여성들을 소외시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강요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자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교과서의 이러한 재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표 4>는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의 수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숫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29세가 17만 7천명, 30-39세가 109만명으로, 30-39세가 되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숫자는 615%나 증가하였다[28].

<표 4>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연령대별	2014	2015
15 - 29세	191	177
30 - 39세	1,116	1,090
40 - 49세	639	611
50 - 54세	192	174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령대별, 사유별 경력단절여성’(2014-2015)

28) 2015년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21.8%로 총 2,052,674명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생애주기 분석(통계개발원, 2014)'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중 결혼 및 출산, 양육을 하는 20~49세를 ‘출산 육아기’연령으로 정의하고 해당 연령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4%, 40~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6%이다. 그리고 20~49세 여성 중 출산·육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보다 더 낮은 58.8%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자료 기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리고 아래의 <표 5>는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여성은 29-30세 때 초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시도별	2015	
	남편	아내
전국	32.57	29.96
읍부	32.49	29.61
면부	32.74	29.55
동부	32.58	30.18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연령(2015년)

따라서 위의 <표 4>에서 30-39세에 경력단절여성이 급증한 이유는, 여성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육아와 가사 활동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이다[29]. 그리고 40-49세에 그 수가 다시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제야 다시 취업을 했거나(그나마도 대부분이 식당일과 같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오랜 공백을 메우고 다시 공적 영역으로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30]

29)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사유로는 1위가 결혼준비로 36.9%, 2위가 육아로 29.9%, 3위가 임신·출산으로 24.4%에 해당한다(2015년 기준).

30) 사실 본 연구자가 굳이 경력단절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이 연구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 요즘엔 그런 거 없다"라는 반박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수없이 들어왔고,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보았고, 막상 구체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단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교과서와 같은 매체들에서는 더욱더 중년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인물'로 재현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중년 여성(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우선순위는 '육아와 가사 일'이 아니라 '본인이 있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성립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아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병행하면서도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획일화된 인물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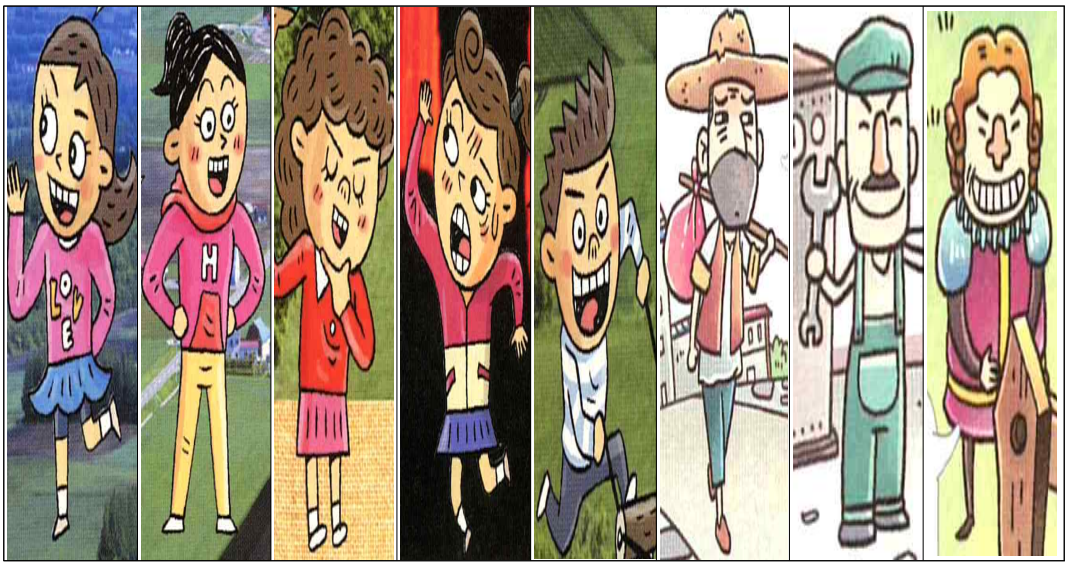


그림 20.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모습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동일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즉, '크고 속눈썹이 긴, 동그란 눈'을 가진, '치마를 입은'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교사인 경우와 엄마 혹은 할머니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실 교과서 속 여성 인물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기다란 속눈썹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재현은 매우 의아하다. 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속눈썹을 길고 둥글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모든 여성의 속눈썹은 태어날 때부터 곧고, 둥글게 말려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31]. 아마도 인물의 얼굴만 봐도 해당 인물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분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긴 속눈썹'을 사용하는 모양인데, 현실 속 여성들의 속눈썹은 정면에서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길게, 위로' 뻗어있지 못하다. 어떤 이는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생물학적 여성임에도 짧은 속눈썹을 가질 수도 있다. 속눈썹의 길이는 그 사람의 성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31) 심지어 여성 인물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삽화에서도 긴 속눈썹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저 개인차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 인물을 재현할 때,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교과서에 재현된 생물학적 남성은 콧수염이 났거나, 안경을 끼고 있거나,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거나, 코가 길거나, 눈이 작고 옆으로 길게 묘사되는 등 묘사되는 인물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여성이 재현되는 모습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것인데, 그 차이는 안경을 낀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만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A교과서에서는 안경을 낀 여성 인물이 비교적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B교과서의 경우에는 안경을 낀 여성 인물이 '교사'로 한 차례 등장하며, C교과서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도 안경을 쓴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현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뉴스 속 여성 아나운서들은 안경을 낀 채로 등장하지 않는다. 사람의 시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닐 텐데, 유독 여성 아나운서들은 안경을 낀 채 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들은 본인의 시력에 따라 안경을 끼거나 벗은 채 뉴스에 등장한다. 이러한 재현은 성차별적이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현된다. 예컨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우리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체형'의 인물들이다. 너무 말랐거나 통통하거나, 뚱뚱한 인물은 교과서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일관된 신체 사이즈의 인물들 위주로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이즈로 치자면, 한국 사이즈를 기준으로 남성 인물은 대략 100사이즈, 여성 인물은 대략 55사이즈인 인물들이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현은 해당 신체 사이즈의 인물만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작동하기에 문제가 있다. 재현 속 인물에 비해 더 마르거나, 더 뚱뚱하면 이는 '비정상적인 몸'이 되고, 사회는 이러한 '몸'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을 빼거나 혹은 찌워서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조언을 매일같이 듣는다.

현실 속 인간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와 체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혹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들을 비가시화해선 안 된다. 즉, 다양한 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체 사이즈를 가진 인물, 장애를 가진 인물, 나이가 든 인물, 성(gender)에 따른 고정관념과는 다른 외양을 가진 인물(예컨대, 아주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나 긴 머리를 한 남성, 치마를 입는 남성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인물 등 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교과서에 등장해야만 한다.

성별을 떠나서, 교과서 속 인물은 보다 다양하게 묘사되어야만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부정적인 인물 묘사

본 연구자가 분석을 한 부분은 '지리' 영역이기 때문인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인물은 거의 없었다[32]. 다만, A 교과서 도시 관련 단원에서 도시 문제를 제시하면서 '가방을 탈취(奪取)하는 강도'를 남성 인물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그림 21. A교과서에 재현된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남성 인물 재현

사실 교과서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특정성별의 인물만 재현되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대개, 여성 인물인 경우는 과소비를 하거나 쇼핑 중독에 빠진 경우로, 남성 인물의 경우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혼이 나거나, 여학생을 괴롭히거나, 숙제를 하기 싫어서 인터넷에서 과제를 복사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등등의 매우 다양한 경우로 묘사되어 왔다. 사실상 과소비와 관련된 것 외에 부정적인 부분을 묘사할 때면, 대부분 남성 인물로 묘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 쪽 성만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성차별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재현에 대해 단순히 '성차별적이다'라고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이러한 재현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재현에 내재된 인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재현을 해석해보자. 부정적인 행위의 주체를 '남

32)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지리 영역의 내용이 주로 '다른 나라의 인문·자연 환경', '지리 정보 기술', '도시 문제 및 인구 문제'등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남성 차별적인 재현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재현이 오히려 여성 차별적인 재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남성’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부정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여성성’은 ‘얌전하고, 착하며, 순종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는 TV에 나오는 배우와 모델들의 신체이다. ‘가냘프고, 쇄골과 어깨뼈가 드러나고, 허벅지 사이가 붙지 않으며, 종아리는 알 없이 날씬하고, 얇은 허리를 가진, 몸무게가 50kg을 넘지 않는’ 여성 말이다. 이러한 여성이 그림 21처럼 대낮에 다른 사람의 가방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강도 행위가 가능하려면, 일단 상대방보다 신체적인 힘이 세야 가방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고, 여차하면 몸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잡히지 않으려면 달리기도 빨라야하며, 체력도 좋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이 해낼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은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신체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순종적이고 착하다’는 여성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해당 삽화가 포함된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는 별다른 고민 없이, 가방을 탈취하는 인물로 남성을 재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격적이고,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것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남성성’에 해당되는 특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저런 일들은 ‘여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재현 역시 결국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이렇게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은 하루 빨리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그 외 성차별적 삽화

(1) 시차 설명을 위한 삽화들

그림 22.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1

그림 23. 시차 설명을 위해 제시된 삽화 2

위의 그림 22와 그림 23은 B교과서에 제시된, '시차'의 개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삽화들이다. 교과서에는 시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경도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하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는 각각 다른 시간대가 존재하고 이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시차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과서 별로 시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시차를 설명하기 위한 공통된 사례로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 축구를 시청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남학생들(그림 22 참고)'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례 제시 자체가 여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한 성차별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여학생들 중에서도 유럽 축구 리그를 챙겨보고, 특정 팀을 응원하며, 본인의 취미로 혹은 장래희망으로 축구를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속 재현에서 직접 축구를 하거나, 축구를 시청하는 인물로 재현되는 것은 모두 남성이다. 이러한 재현은 실제로 해외 축구를 좋아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챙겨보는 여학생들, 축구 게임을 즐겨하며 본인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차별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삽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의 보편성이 성(sex)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축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럽 축구 리그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낮에 경기가 이루어지지만,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생방송으로 축구를 봐야만 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와 닿지 않는 경험일 것이다.

또한, 그림 23은 출장을 가는 남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출장지의 시차 때문에 시간을 헷갈려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성 인물의 경우, 공적인 상황에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도 여성 인물을 함께 제시하거나 사례별로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을 번갈아서 재현해준다면 보다 바람직한 삽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그런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삽화가 모든 학생의 흥미를 끌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삽화가 아니며, 한쪽 성에 편향적인 삽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교과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여성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단독으로 표현된 사례들이 있는가?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이 사례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래의 <표 6>은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

교과서	여성	남성
A	기상캐스터, 공장 근로자, 교사, 섬유 방직 공업 노동자	비행기 기장, 축구선수, 화훼 농업 종사자, 농부(벼농사, 밭농사), 극지방에 파견된 과학자, 열대우림 개발 현장의 근로자, 대상(사막의 상인), 사진작가, 광부, 아나운서, 기자, 신부님, 공장근로자, 첨단산업단지 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역무원
	4	16
B	농부, 사회 복지사, 회사원, 은행 창구 직원, 교사	회사원, 농부, 축구선수, 우유 배달원, 가축시장 상인, 야시장 상인, 119대원, 교사, 미술가, 은행원
	5	10
C	관공서 직원, 영양사, 농부, 교사, 간호사	영화감독, 교통 정보 서비스 센터 직원, 관공서 직원, 농부(벼농사), 자본가(영국 인클로저 운동 시기), 도시 노동자, 광부, 부족장, 여행가, 축구선수, 연구원, 농부, 자본가, 공장 근로자, 광부, 부족의 족장, 고무 플랜테이션 노동자, 사막의 상인, 교사, 외국인 근로자, 자동차 공장 근로자
	5	21
중복을 제외한 전체적 직업	기상캐스터, 교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회사원, 관공서 직원, 농부, 공장	비행기 기장, 축구선수, 화훼 농업 종사자, 농부(벼농사, 밭농사), 과학자, 현장 근로자, 사막의 상인, 사진작가, 광부, 아나운서, 기자, 신부, 공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근로자, 섬유 방직 공업 노동자	근로자, 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역무원, 회사원, 우유 배달원, 가축시장 상인, 야시장 상인, 119 대원, 교사, 미술가, 은행원, 영화감독, 교통 정보 서비스 센터 직원, 관공서 직원, 자본가, 도시 노동자, 부족장, 여행가, 플랜테이션 노동자, 자동차 공장 근로자
	11	33

<표 6>은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한 눈에 보기에도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남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직업군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성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여성의 직업으로 주로 소개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교사, 영양사,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등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들이며, '돌봄'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에는 '비행기 기장, 사진작가, 구조대원, 미술가, 영화감독, 도시 노동자, 우유 배달원' 등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것에 비해 훨씬 폭넓고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를 통해 제시되는 직업군에서도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 성(sex)에 따라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비단 여성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떤 성(sex)을 가진 사람이든 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공간 활동 범위

1. 성별 공간 활동 범위 분석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를 성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교과서에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에 따라 공간 활동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활동은 크게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4가지 공간 Scale로 나누어 구분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교과서 속 인물의 공간 활동 범위

공간범위	여	남
가정	★★★★★★★★	★★★★★★★★★★★★ ★★★
	8회, 35%	15회, 65%
지역사회	★★★★★★★★★★★★ ★★★★★★★★★★★★ ★★★★★★★★★★★★ ★★★★★★★	★★★★★★★★★★★★ ★★★★★★★★★★★★ ★★★★★★★★★★★★ ★★★★★★★★★★★★ ★★★★★★★★★★★★ ★★★★★★★★★★★★ ★★★★★★★★★★★★ ★★★★★★★★★★★★ ★★★★★★★★★★★★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3회, 25%	127회, 75%
국가	★★	★★★★★★★★
	2회, 20%	8회, 80%
세계	★★★★★★★★★	★★★★★★★★★★★★★ ★★★★★★★★★★★★★ ★★★★
	9회, 24%	28회, 76%

위의 분석은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를 기준으로 그 수를 헤아렸다. 예컨대, 미국과 인도에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업무 분업의 경우에도, 그 공간 활동 범위를 세계로 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화전 농업을 하거나 얼음낚시를 하는 행위, 소를 방목하는 행위 등도 공간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해당 단원에서 각 지역의 주민생활의 모습으로 재현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래프팅, 스키, 서핑 등의 활동은 특정한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공간 활동 범위를 국가로 보고 셈하였으며, 다만 트래킹은 각 지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되어 공간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포함시켰다. 또한, 각 국에서 벌어지는 축제(보령 머드 축제, 삿포로 눈 축제 등)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관광 행사이기에, 공간 활동 범위를 세계로 판단하여 셈 하였으며, 용암 촬영이나 빙하 관광과 같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활동들도 공간 활동 범위를 세계로 분류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

공간 활동 범위별로 인물들의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중학생 대상의 교과서인 만큼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활동이 제일 많았으며, 지리 영역의 특성상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을 소개하거나, 세계 여러 지역들의 축제를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본 연구자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으로 갈수록, 즉 공간 활동의 범위가 커질수록 여성 인물의 등장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공간 활동 범위가 가정에서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커지는 것과 인물들의 성별 등장 비율은 별다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공간 활동 범위에 따른 인물들의 활동은 복잡한 성격을 띄어서, 단순히 등장 비율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활동의 특성을 파악해서 비교·분석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먼저,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재현된 인물들의 성별 활동을 비교해보자. 본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보다 많이 재현된 인물은 여성 인물이 아니라 남성 인물이었다. 여성 인물은 가정 스케일(Scale)에서 총 8회 등장하여, 35%의 등장비율을 보이는 반면, 남성 인물은 총 15회 등장하여, 65%의 등장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스케일(Scale)에서 여성 인물들의 활동으로 셈해졌던 것은 주로 아이 돌보기[33], 청소기 돌리기 등의 '가사 노동'으로 분류되는 활동이었다. 반면, 가정 스케일(Scale)에서 남성 인물들의 활동으로 셈해졌던 것은 TV로 축구 경기 관람하기, 컴퓨터로 펜팔보내기, 컴퓨터로 자료 찾기 등의 것들이었다. 이는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활동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활동들이다. 즉, 여성이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등장할 때는 주로 가사 노동을 하는 모습으로 재현된 반면, 남성은 노동이 아닌 유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

33) 3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되었으며, 각각 셈하여 총 3회를 차지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반면 남성은 가정에서의 특별한 역할 수행에 대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재현에는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은 고정되어 있으며, 가정 내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인 경우를 살펴보자. 지역사회 스케일(Scale)의 활동 중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들을 살펴본 결과, 여가를 위한 활동은 24회, 직업 활동은 14회 재현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성의 활동은 여가를 위한 활동이 66회, 직업 활동이 46회 재현되었으며, 그 외의 활동들은 각 인물들이 위급상황 시 안전을 위해 행하는 활동들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43회 등장하여 25%의 등장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127회 등장하여 75%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의 등장비율이 약 1/3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재현된 직업이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는 대상인 중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 범위는 가정과 지역사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스케일(Scale)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등장 비율이 1/3 가량 차이가 나고, 여성 인물들의 여가 활동과 직업 활동으로 재현되는 활동의 종류가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 인물의 활동 중 여가를 위한 활동은 26.6%, 남성 인물의 활동 중 여가를 위한 활동은 73.3%의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의 활동이 남성의 활동에 비해 확연히 적게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직업을 위한 활동도 여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이 23.3%, 남성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이 76.6%의 비율을 보여서 마찬가지로 남성 편향적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스케일(Scale)에서 여성 인물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가 국가인 경우는 다른 공간 활동 범위에 비해 가장 적게 재현되었다. 여성 인물이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 것은 총 2회였으며, 이는 20%의 등장비율을 보인다. 반면 남성 인물의 경우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 8회 재현되었고, 80%의 등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율을 보였다.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모두 국가 스케일(Scale)의 활동보다는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재현되었다. 여성 인물의 경우는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등장비율을 보였으며, 남성 인물의 경우는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물론 등장비율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게 재현되고 있지만,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인물들이 행하는 활동의 특징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성 차별적인 점이 발견되었다. 여성 등장인물이 세계적인 스케일(Scale)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등장인물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축제를 즐기거나,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거나, 배를 타고 빙하 관광을 하는 모든 경우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과 함께 등장하였다. 남성 인물 없이 여성 인물만 단독으로 등장하여 세계 스케일(Scale)의 공간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 제시되었는데, 이는 여학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호주에 있는 삼촌네 집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였다.

현실 속 많은 여성들은 해외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홀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남성 인물 없이 여성들끼리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연구를 위해서 해외 오지 답사를 나가기도 하고, 공부를 위해 해외의 특정 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지리' 영역을 다룬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서 여성 인물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남성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만 재현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성 인물들도 남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계 스케일(Scale)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남성과 똑같이 주체성을 지닌 '인간'이다. 따라서 남성 인물 없이도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이 더 많이 재현되어야만 한다.

사실 현실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공간 사용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 이유는 성별에 따라 동원 가능한 자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정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성은 약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되기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킨다.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 여성에게 있어 ‘위험’, ‘안전’ 혹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침해나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 - 예컨대, 집’에 머무르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공적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여성들의 대처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생활패턴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함으로써 특정 공간과 영역만을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2004). 즉, 여성은 지속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적인 이동은 폭력적인 공격과 강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은 야간의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으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고 살아간다(Smith, 1987). 이렇게 여성이 스스로를 ‘사적 공간’에 가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은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 공간은 ‘남성적’이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되는 반면, 사적 공간은 안전한 여성들의 피난처로 종종 간주된다(Blunt and Dowling, 2006; 박경환 외 역, 2015 재인용). 하지만 발렌타인(Valentine, 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절대 다수의 범죄, 특히 강간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발렌타인(Valentine)은 그 이유를 공적 공간에서의 폭력은 속속들이 미디어에 보도되어 그 빈도가 과장되게 느껴지는 반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개인의 일’로 치부되어 미디어에 거의 보도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왜곡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황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만들며, 집이라는 공간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속시킨다(Valentine, 1989; 1992).

그렇다면 여성들이 느끼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실제 우리나라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해보았다.

2014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범죄분석」의 결과, 강력범죄(흉악)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무려 89.1%이다.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 피해 건수는 2005년 14,847건에서 2011년 23,544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22,38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3년 25,400건, 2014년 28,92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피해 건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 집중되는데, 2005년 123,264건에서 2012년 168,76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136,396건, 2014년에는 133,222건으로 감소하였다[34].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남성이며, 여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범죄(흉악)의 피해자 피해 건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많아 무려 89.1%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강력범죄(흉악)에 성'폭력'범죄(강간)[35]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36].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

---

34) 강력범죄는 폭력과 흉악으로 구분되는데, 강력범죄(폭력)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범죄가 해당되고, 강력범죄(흉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사람의 신체에 유해를 가한 범죄가 해당된다.

35)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힘의 차이에서,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며, 권력형범죄이다. 쉽게 말해 '그래도 되니까'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들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이나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군대 선임의 후임에 대한 성'폭력'.

우리는 성폭력범죄를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식 속에서 성폭력범죄는 '성'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서 '성'폭력범죄라고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성'폭력'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될 때, 피해자는 '폭력'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섹스'에 노출된 것이 된다.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 혹은 문란한 여자,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폭력'이 아니라 '섹스'에 노출된 것이라 인식 될 때, 피해자를 향한 주위의 시선은 "그런 폭력을 당하느라 얼마나 두려웠니?, 영문도 모른 채 가해를 당하게 돼서 정말 무서웠겠다"가 아니라,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네가 짧은 옷을 입었거나/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있었거나/ 가해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거나/ 술에 취했던 거 아니야?"가 된다. 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범죄를 대할 때, '폭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성'폭력'범죄는 말 그대로 '폭력범죄'일 뿐이다. 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은 없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아예 옷을 다 벗고 있었다거나, 길거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되진 못한다. 성'폭력'은 100%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는 명백한 '폭력'범죄이다.

36) 강력범죄 피해 건수에 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18&menuId=2003102&rootId=2003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강력범죄(흉악)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지를 ‘공간이용 시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해보자.

2016년 말, 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다. 서울에만 백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집계되는 이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 시위’로 널리 보도되고 있다[37].

하지만 이 시위가 정말 ‘평화 시위’였을까?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 행진을 하던 와중에 당한 성추행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남성들은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의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도망을 가거나, 행진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했다. 또한, 다른 곳으로 가서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유인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참여한 학생들의 책가방 아래로 손을 넣어 신체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학생들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경험담까지 연달아 SNS에 올라오고 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회에 참여하느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으니 예쁘다”라거나, “얼굴이 예쁜 것 같은데 마스크로 왜 가리냐, 벗어봐라”, “어린게 예쁘네”와 같은 성희롱 발언들을 쏟아냈으며, 교복을 입은 학생의 다리를 응시하기도 했다[38]. 이 뿐만이 아니다. 집회 곳곳에서 볼 수 있

37) 횟수를 거듭할수록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는 증가하였다. 촛불집회의 규모는 10월 29일 1차 집회 당시 2만명, 11월 5일의 2차 집회 당시 20만명, 11월 12일의 3차 집회 당시 100만명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늘어났다(서울에서 모인 인원 수 기준). 또한, 11월 19일의 4차 집회 당시에는 95만명,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는 190만명, 12월 3일의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명,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104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4차부터 전국 집계,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숫자는 주최측에서 집계한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8)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이라는 약자성에 ‘청소년’이라는 약자성까지 더해져,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다가와 반말을 하며 말을 걸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을 감수해야만했다. 즉,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으로서 ‘성적 대상화’되어 성추행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부족한 ‘미성년’으로 여겨져 모르는 사람에게도 반말을 듣고, 훈계를 당하는 등의 경험을 해야만 했다. 집회에서조차, 그저 ‘개념 있는 여고생’, ‘어여쁜 여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었던 온갖 '년'이 들어간 욕설들과 '강남 아줌마'라는 조롱 섞인 문구, '여자가~'로 시작하는 모욕적인 말들과 피켓 등, 그 날의 광장은 분명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39].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촛불집회에서조차,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서 소비되었던 것이다. 즉,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이자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잠재적 연애(또는 섹스)대상자로 '성적 대상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여성혐오(Misogyny)[40]'라 지칭한다. 여성혐

생'으로만 소비된 것이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2016. 12. 10, 「TONG」"학생, 얼굴도 예쁜데 마스크 벗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일, 기사 링크: http://naver.me/xuon3GTB.

39) 본 연구자는 촛불집회의 목적과 의도에 동의한다. 그러나 'ㅇㅇ년'과 '아줌마'라는 비난, '여자가~'라는 비난, 닭년, 병신년과 같은 비난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잘못을 여성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 당사자를 비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집회 현장과 각종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여러 속성 중 하나인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약자성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여성성'이 호명되는 것은 '여성혐오'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값은 '남성'이다.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기본 인간(즉, 남성)은 사회에서 쉽게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 남성이 저지른 잘못은 당사자 개인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약자(혹은 소수자)는 언제나 소수자를 대표해서 존재한다. 약자(ex: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는 끝없이 사회의 기본 인간(ex: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원주민 등)과 자신이 동등한 인간이며,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만약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약자 개인이 아니라, 약자가 속한 집단 전체의 실패로 여겨진다.

예컨대, 우리는 지금과는 반대되는 역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단 한 명의 '여성 왕'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에, 그 수많은 왜란과 호란을 겪고, 마침내 국권까지 빼앗겼음에도, 왜적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챙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만을 보전하기 위해 도망을 갔음에도,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왕이 '남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근현대에 들어와 몇 번의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시 권력자들의 '남성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남성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남성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와 같은 비난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 후로도 IMF가 터지고, 강이 죽어가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 벌레들이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며 악취를 풍겨도 아무도 "이래서 남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남자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앞으로 남자 대통령은 한동안 없겠네.", "남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와 같은 조롱 섞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왕, 대통령'은 사회의 기본 인간인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우리 사회의 '기본 인간'인 '남성'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당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약자, 소수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있는 집단 전체를 향한다. 따라서 2016년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집회, 각종 매체, SNS를 통해 이루어진 대통령의 여성성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잘못을 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대통령의 여성성과 이로 인한 약자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것을 '여성혐오'라 한다.

40) '여성혐오(Misogyny)'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감정적 혐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즉,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여성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대상화 등이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까지도 여성혐오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도 여성혐오사상을 가질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의 구조 안에서 여성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화 된다. 따라서 이런 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 "집회현장에는 교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 "(여성인)나는 무서워서 (남성인) 동행자 없이는 그런 곳에 못 가겠다."와 같은 반응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에 "촛불집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리 없어"와 같은 반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소비되며,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이렇게 공적 공간에서 조차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공적 공간(영역)과 사적 공간(영역)의 분리는 젠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공간적 과정이었다[41].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적 공간에, 남성들은 공적 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고에 남아있다. 따라서 여성이 사적 공간을 벗어나 공적 공간에 있을 때, 그 여성은 본인의 마땅한 위치를 벗어나 남성들의 공간인 공적 공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적 공간에 있는 여성은 함부로 불러도 되고(캣콜링[42]), 노골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 혹은 전신을 쳐다보

41)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었던 종전의 산업은 변모하기 시작했다. 도시 내 가정과 임금 노동의 장소는 분리되었고,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남성은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여성을 '가정의 천사'로 재현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고 집을 잘 가꾸는 것이 여성의 타고난 본성이므로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고 조장했다. 한편, 공적 공간인 도시는 주 이용자인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공간 구획이 이루어지고, 교통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다. 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사무실들이 집중하면서, 도시 내부에 있던 거주지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교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시 도심은 '일을 하는 남성의 장소, 공적 공간(영역)'으로, 교외 지역은 '가정이 위치한 여성의 장소'로 분리되었다. 이는 여성의 삶을 더더욱 가정으로 묶어놓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일하러 나가는 남성에게만 자동차가 주어진 상황에서 교외 지역 가정에서의 여성의 삶은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제약에 덧붙여, 여성들은 시간적 제약도 받게 된다.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 학력, 적성과는 상관없이 공간적 조건과 시간적 조건을 만족하는 교외 지역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여성의 일터인 '교외 지역'과 남성의 일터인 '도심'이 분리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이 젠더화되는 동시에 젠더 역시 공간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 캣콜링(Catcalling)이란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환호하듯이 소리 치고, 외모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성추행을 말한다. 캣콜링은 여성에게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고, 분노하게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도 되며[43],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도 되는 존재가 된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고, 내키면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즉, '바라보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자' 사이에는 권력 관계가 내재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적인 관계의 이면에는 여성을 끝없이 타자화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여성혐오 사상이 짙게 깔려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더욱 공적 공간을 활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각종 재현물에서 그렇게 재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 공간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여성,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여성,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등 여성은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재현 속 여성은 '타인의 시선'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본인의 시선'에서 재현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경우라면, 타인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여성이 비춰지고, 여성 자신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바디라인을 가꾸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땀이 나고 표정이 일그러지더라도 상관없다. 여성은 항상 예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44]. 사회의 획일적인 미(美)의 기준에 맞춰진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외모와 개성을

---

43)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이러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응시'는 '시선강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4)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영상들을 참고하라.
전자의 예시로는 르까프(Lecaf)의 광고영상을(링크: https://youtu.be/lgni_GJneKw), 후자의 예시로는 리복 우먼스의 #나는 독하다 광고영상을(링크: https://youtu.be/wru0uIR1l-U) 들 수 있다. 르까프의 영상에서 주인공은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속 주인공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주위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며, 불필요하게 신체의 특정 부분(가슴과 엉덩이)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진다. 영상 내내 카메라의 시선은 누군가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주인공 역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게다가 영상 속 주인공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 하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반면, 리복 우먼스의 영상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리복 우먼스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한계와 싸운다. 주변의 말과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한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인상이 잔뜩 찌푸려지지만 개의치 않는다. 이 영상 속에서 주인공은 대상화 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재현된다.
두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재현되어야 한다[45]. 이러한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하나의 '주체'로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성별에 따라 공간 활용의 범위가 제한되고, 이용방식이 제한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성별에 따른 이러한 불평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는 오히려 차별적인 현실의 모습과는 반대로, 바람직한 인물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한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다양한 공간 활동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인물들의 모습이 보다 많이 재현되어 질 때에, 사회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속에서도 각 공간 스케일(Scale)별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만 한다.

45)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도브(Dove)의 캠페인 #MyBeautyMySay를 참고하라.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도브 #MyBeautyMySay 캠페인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링크: http://www.facebook.com/diversitykorea/videos/11747554859494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 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가?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과 역할 및 태도, 직업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에서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과 삽화, 텍스트 자료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등장했다. A, B, C 세 교과서의 분석 결과 나온 수치들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서 속 사진 자료에는 평균적으로 여성 인물이 30%, 남성 인물이 70%의 비율로 등장했다. 교과서 속 삽화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삽화 자료에 재현된 여성 인물의 비율은 31%, 남성 인물의 비율은 69%였다. 또한, 텍스트 자료에서는 여성 인물은 28%, 남성 인물은 72%의 비율로 등장했다. 따라서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 텍스트 자료에서 재현되고 있는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비율은 대략 3:7 정도로, 남성 편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에 관한 분석 결과,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에서는 주로 남성 인물만 등장하여 사건이 전개되거나, 여성과 남성 인물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 인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었다. 사진 속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15.7%인 반면,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84.3%로 매우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삽화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24.7%, 남성 인물의 역할 비중은 약 75.3%로 사진에서의 차이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은 남성 편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텍스트에서의 역할 비중은 여성 인물이 약 22.6%, 남성 인물이 약 77.3%의 비율을 보여 마찬가지로 남성 편향성이 나타났다.

둘째, '등장인물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되는 것은 남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되는 것에 비해 그 종류가 적고, 성역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여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은 총 63가지, 남성 인물의 활동으로 재현된 것은 총 184가지로, 1: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일-예컨대, 가사와 육아-들은 대게 여성 인물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46].

'등장인물의 역할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인물은 주로 남성 인물에 비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이 모두 제시된 삽화에서 여성 인물은 대게 남성 인물의 의견을 묻거나, 남성 인물의 설명에 대답하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에, 남성 인물은 주로 여성 인물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시각자료(사진, 삽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비슷한 패턴의 활동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여성은 낙타의 뒤쪽에 타고, 남성이 낙타의 앞쪽에 타서 직접 낙타를 모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등장인물이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남성 인물로 묘사되었고, 반면에 사진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여성 인물이었다.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항상 동반자와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된 반면, 남성은 홀로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는 한 가

46) 가사활동(청소기 돌리기)과 육아활동(아이 돌보기, 아이 안고 있기 등)은 모두 여성 인물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해서 남성 인물이 육아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된 경우가 있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있는 프랑스인 남성과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재현된 경우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의 남성 편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등장인물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세 교과서에서 묘사된 직업 중에서 중복을 제외한 전체 직업의 수는 여성 인물의 직업으로 묘사된 것이 11개, 남성 인물의 직업으로 묘사된 것이 33개였다. 즉, 여성의 직업으로 제시되는 직업군의 종류는 남성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 인물의 직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성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여성들의 직업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은 '간호사, 기상캐스터, 교사, 은행원' 등으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들이며, '돌봄 노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비행기 기장'에서부터 '사진작가, 영화감독, 미술가, 교사, 광부' 등 매우 다양한 직업들이 묘사되고 있었다.

셋째, 사진과 삽화 속 인물들의 공간 활동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 여성 인물은 총 8회 등장하여 35%의 등장비율을 보였고, 남성 인물은 총 15회 등장하여 65%의 등장비율을 보였다. 즉, 가정이라는 공간 활동 범위에서는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자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는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반복된다면 가정 스케일(Scale)에서 보다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여성 인물일 것이라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 스케일(Scale)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의 활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재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물들의 활동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 인물의 경우 아이 돌보기나 청소기 돌리기와 같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에 남성 인물은 TV로 축구경기 시청하기, 컴퓨터로 펜팔 보내기 등의 '유희'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만 재현되어 여성 인물의 활동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간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인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총 43회, 25%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고, 남성 인물은 총 127회, 75%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 활동 범위가 국가인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총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로 20%, 남성 인물은 총 8회 재현되어 80%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동 범위가 세계인 경우는 오히려 국가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재현되고 있었는데, 이는 분석 대상이 '지리 영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 영역'이다보니, 교과서에 인물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재현되고 있었다.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여성은 총 9회 재현되어 24%의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총 28회 재현되어 76%의 비율로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인물이 재현된 9차례 중에서 여성이 혼자서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그 한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8차례의 경우에는 여성 인물은 모두 남성 인물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여성 인물과 동행하지 않고 남성 인물만 세계 스케일(Scale)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20차례 재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간 활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재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속 다양한 사례들에서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기준(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을 벗어나는 인물들, 즉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들이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삽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남성 인물들끼리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나머지 장면들에서는 '비가시화'되어 분명 그 장소에 함께 있으나 보이지 조차 않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은 분석의 대상이었던 3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 한 교과서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표준 체격을 벗어나는 몸을 가진 인물 또한 거의 재현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모든 사례는 이성애를 기본 전제로 한 사례였으며, 단 한 차례도 성 소수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성의 나이듦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젊고 예쁘고 날씬한' 획일적인 이미지의 여성 인물들만이 재현되고 있었다. 특히나 '나이 든' 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이 재현된 경우는 '여자 교사, 엄마, 할머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어떤 교과서에서는 심지어 안경을 쓴 여성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동그랗고 큰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한 재현들도 보였다.

혹자는 본 연구의 이런 결말을 보고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자의 경우에도 처음에 분석을 시도했을 때는 위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이러한 사례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어쩌면 당연하다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러한 재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재현을 접하면서 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런 식의 차별적인 재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온 아이들은 이러한 재현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어쩌면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재현의 부당함을 진작부터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해왔던 학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에 진행하였던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지적한 사항들만 봐도, 꽤나 깊은 안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만약 학생들이 지금은 2016년인데, 왜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성 차별적인 재현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란 없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내재한 재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개발 주체들은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진뿐만 아니라, 교과서 속 삽화를 그리고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필수적으로 성 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성차별적인 교과서 집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등장 수를 맞추고, 주방에 여성 인물만을 그려 넣지 않는다'와 같은 엉성한 사례 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차별적인 재현인지,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삽화나 사진 속 인물의 묘사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 평등을 위한 기계적 대응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 제시를 포함한, 성 평등 교과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Ⅶ.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교육부, 2015, 초등학교 사회 3-1.

김영순, 김진수, 박선미, 강문근, 천종호, 황규덕, 김지현, 김부헌, 김웅, 박인옥, 박홍인, 이용희, 박한철, 조수진, 이수진, 성경희, 황미영, 박서현, 이병인, 2014, 중학교 사회 ①, 두산동아.

김창환, 정성훈, 이재웅, 김민숙, 강정구, 송훈섭, 정홍권, 박성혁, 김해성, 송경환, 송성민, 박현화, 김세연, 박선운, 배화순, 이수연, 2014, 중학교 사회 ①, 신사고.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3, (원본)나혜석 전집, 푸른사상사.

박경환, 류연택, 심승희, 정현주, 서태동 (역), 2015, 지리사상사, 시그마프레스, 서울(Tim Cresswell, 2013, Geographic Thought : A Critical Introduction, Wiley-Blackwell).

박부권·심연미·김수연 (역), 2001, 학교지식의 정치학-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우리교육, 서울(Michael W. Apple, 1993, Official Knowledge: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Routledge, New York).

박정애 (역), 2002, 행복한 페미니즘, 큰나, 서울(Bell Hooks, 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 passionate politics, South End Press).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사)한국여성연구소, 2005, 새 여성학 강의- 한국 사회, 여성, 젠더, 동녘.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 한울아카데미(Linda McDowell, 1999, Gender, Identity & Place-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Polity Press, Cambridge).

이영민, 진종헌, 박경환(역), 2011, 현대 문화지리학-주요개념의 비판적 이해-, 논형, 서울(David Atkinson, Peter Jackson, David Sibly, Neil Washbourne, Nick Bingham,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cepts, I.B.Tauris&company).

이희영 (역), 2009, 제2의 성, 동서문화사, 서울(Simone de Beauvoir, 1949, Le Deuxième Sexe).

정현주(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Gillian Rose,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UK).

최성길, 최원회, 강창숙, 박상준, 임준묵, 최병천, 조일현, 김윤자, 권태덕, 이수영, 조성백, 김상희, 강봉균, 정민정, 2014, 중학교 사회 ①, 비상교육.

국내 논문

강내희, 2000, 재현체계와 근대성-재현의 탈근대적 배치를 위하여, 문화과학 24, 15-38.

구정화, 2004, 아동의 '인권' 개념 형성에 비추어 본 초등사회과 인권 내용 적합성, 사회과교육, 43(2), 65-84.

김윤희, 유정애, 2004,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나타난 성 정형화 및 성역할 실태 분석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8(2), 11-22.

김지선, 2004,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구성과 결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희, 2001,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호엽, 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여성 이미지의 재현과 의미 구성의 전략: 사회과 교과서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49(1), 115-127.

노경희, 2007,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의 성 편향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현종, 2005, 재현의 정치: 우리가 지워버린 사람들 - 어느 장애인 관련 사회과 수업 실천의 의미-, 사회과교육, 44(3), 93-1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민병석, 1993,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경, 2003, 교육과정 변화기 사회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사례연구: 변화지향적인 교사의 교실 수업 변화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범윤경, 1998, 학교교육과 성평등의 관련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순희, 2007,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과 성역할 태도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난희, 1997, 학교교육의 성역할 재생산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미화, 2010,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변천과정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명수, 1997, 기호와 재현, 기호학연구, 3, 404-431.

손명철(역), 1993, 사회적 性의 지리학, 여성학논집, 10, 279-302(Sophie Bowlby, Jane Lewis, Linda McDowell, Jo Foord, 1989, The geography of gender, *New models in geography*, 157-175).

신혜섭, 2007, 사회과 교육의 성역할 내용분석과 양성 교육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희정, 2003,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한국과 미국 사회 교과서 비교-,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미옥, 1982, 학교교육과 성별불평등에 관한 연구-교과서에 제시된 노동의 성적 분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석희, 2004,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Gender Bias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8(1), 83-103.

이은영, 2008,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성의식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주희, 1993,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사회과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진석, 김혜현, 2005, 제5, 6,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시민교육연구, 37(4), 159-183.

이재혁, 1997, 사회분화와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아경, 2003,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태연, 류원정, 2004, 남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139.

정태연, 이윤미, 2004,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및 성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89-110.

조옥라,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9-49.

최정윤, 2006, 사회과 교육에서 성차별적 태도의 재생산 메카니즘 분석-10학년 「사회」 교과서의 집필자, 교과서 내용, 학생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호, 2005,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중학교 도덕교과서 분석중심으로-, 한국교육, 32(3), 233-264.

최형찬, 2014, 도덕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45, 83-108.

국내 보고서

구정화·설규주·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집필기준 설명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과서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5, 초·중등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자료집.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 역할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재춘, 왕석순,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용, 권영락, 김정효, 이동엽, 2014, 미래 사회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전 방안, 연구보고 RRT 201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재림, 정해숙, 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해숙, 정경아, 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김연, 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2015, 나만 힘든가? 20~30대 여성들의 일 이야기 인터뷰집.

통계 자료

통계청, 성·연령·행동분류별 여가활동시간(201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연령(2015).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령대별, 사유별 경력단절여성(2014-20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기혼 여성의 가사활동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여성 고용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여성 월평균임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출산 육아기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해외 단행본

Alison Blunt, Robyn Dowling, 2006, *Home*, Routledge.

Alison Lee, 1996, *Gender, Literacy, Curriculum: Re-writing School Geography*, Routledge Taylor & Francis.

Claude Fischer, 1994,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vid Lambert, David Balderstone, 2000, *Learning to Teach Geography in the Secondary School: A Companion to School Experience*, Taylor & Francis.

Iris Young, 1990, *Throwing Like a Girl and Other Essays in Feminist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Jo Paoletti, 2012, *Pink and Blue: Telling the Boys from the Girls in America*, Indiana University Press.

Judith Whyte, 1983, *Beyond the Wendy House: sex role stereotyping in primary schools*, Longman for Schools Council.

Kate Myers, 1992, *Genderwatch: After the Education Reform 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argaret Andersen, 1983,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and feminist perspective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Rachel Pain, 1998, *Geography and the Fear of Crime: A Review*,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Division of Geograph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Newcastle.

Susan Hanson, Geraldine Pratt, 1995, *Gender, Work, and Space*, Routledge.

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2014, *Feminist Geographies: Explorations in Diversity and Difference*, Routledge.

해외 논문

Carolyn Whitzman, 2007, Stuck at the front door: gender, fear of crime and the challenge of creating safer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11), 2715-2732.

Diane Reay, 1990, Girls' Groups as a Component of Anti-sexist Practice-one primary school's experience, *Gender and Education*, 2(1), 37-48.

Ellen Garvey, 1995, Reframing the Bicycle: Advertising-Supported Magazines and Scorching Women, *American Quarterly*, 47(1), 66-101.

Gill Valentine, 1989,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Area*, 21, 385-390.

Gill Valentine, 1992, Images of danger: women's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le violence, *Area*, 24, 22-29.

Inge Broverman, Susan Vogel, Donald Broverman, Frank Clarkson, Paul Rosenkrantz,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1,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Jane Connolly, 1993, Gender Balanced Geography: Have We Got It Right Yet?, *Teaching Geography*, 18(2), 61-64.

Linda McDowell, 1992, Doing gender: feminism, feminists and research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ethods in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7(4), 399-416.

Lisa Serbin, 1978, Teachers, peers and play preferences: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sex typing in the preschool, *Perspectives on non-sex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79-93.

Margaret Tarampi and Nahal Heydari, Mary Hegarty, 2016, A Tale of Two Types of Perspective Taking sex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y, *Psychological Science*, 27(11), 1507-1516.

Moshe Hoffman and Uri Gneezy, John List, 2011, Nurture affects gender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08(36), 14786-14788.

Rachel Pain, 1991, Space, sexual violence and social control; integrating geographical and feminist analysis of women's fear of crim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 415-431.

Robert Kitchin, 1996, Are there sex differences in geograph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Geographical Jounal*, 162(3), 273-286.

Shen Zhang and Toni Schmader, William Hall, 2013, L'eggo My Ego: Reducing the Gender Gap in Math by Unlinking the Self from Performance, *Self and Identity*, 12(4), 400-412.

Susan Smith, 1987, Fear of crime: beyond a geography of devia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1(1), 1-23.

Tomaz Tadeu Da Silva, 1999, The Poetics and Politics of Curriculum as Representation, *Pedegogy, Culture & Society*, 7(1), 7-33.

Tuulia Ortner, Monika Sieverding, 2008, Where are the Gender Differences? Male Priming Boosts Spatial Skills in Women, *sex Roles*, 59(3), 274-28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외 보고서

Victor Lavy, Edith Sand, 2015, On the origins of Gender human capital gaps: short and long term consequences of teachers' stereotypical bias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909.

영상 자료

나이키, Nike presents dadading, https://youtu.be/1UvPZ8fD4B8.

도브, Beauty on your own terms #MyBeautyMySay, https://youtu.be/_XOa7zVqxA4.
(도브 캠페인 한국어 자막 포함 영상: 한국다양성연구소, http://www.facebook.com/diversitykorea/videos/1174755485949434.)

르까프, 2010년도 Lecaf 20s TV CF, https://youtu.be/lgni_GJneKw.

리복 코리아, 리복 우먼스 #나는 독하다, https://youtu.be/wru0uIR11-U.

스웨거, [스웨거X전효성] 남자들이여 당당하게 세워라, 머리를! Hair Stunner Wax Teaser 60s ver, https://youtu.be/ypulTmEVOFc.

아이소이, 선영아 사랑해, https://youtu.be/rE-KBKe9U6Y.

유니세프, 영양실조 어린이 육아일기-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 https://youtu.be/oHDNx6bEWP0.

위스퍼, #여자답게, https://youtu.be/kYoZcGQaEV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스퍼, #여자답게 멈추지마, https://youtu.be/8_4dwgASao4.

위스퍼, #여자답게 #물러서지마 #위스퍼 캠페인 두 번째 영상,
https://youtu.be/mp1TV25z66U.

NowThis, Protests Erupt Across the country after Donald Trump's victory,
https://www.facebook.com/NowThisNews/videos/1220631778026944.

TED, A call to men - Tony Porter, https://youtu.be/td1PbsV6B80.

기사

중앙일보, 2016. 12. 10, 「TONG」 "학생, 얼굴도 예쁜데 마스크 벗지?" 촛불 집회에서 벌어진 일, 기사 링크: http://naver.me/xuon3GTB.

The Huffington Post Korea, 2016. 10. 16, 암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
기사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2016/10/16/story_n_12512370.html?utm_hp_ref=kr-wom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암벽등반 선수들이 패러디 화보를 통해 GQ의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꼬집다.

The Huffington Post Korea, 2016. 10. 16 기사

GQ가 지난달 익스트림 스포츠와 등산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자 암벽등반 선수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포토에세이는 "세 명의 프로 클라이밍 선수"와 "두 명의 귀여운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의 조슈아 트리에 암벽등반 여행을 떠난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는 "귀여운 친구들"이 모두 여성이었고, "프로 클라이밍 선수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여성 모델들은 그저 남성 모델들을 쳐다보거나, 쏟아지는 물 밑에서 상의를 벗은 채 서 있었다.

GQ의 암벽등반 화보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운동 실력을 뽐낼 수 없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Q가 남성을 위한 잡지인 만큼 남성인 운동 선수들에 집중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일지 모르지만, 아웃도어 여성 연합(OWA)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여성을 그저 "모델"로 기용한 것은 클라이머 사회를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클라이밍 선수이자 인류학자인 조피아 라이치는 OWA의 웹사이트에 "여성 클라이머들은 수십 년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당신들을 그들의 노력을 무시했고, 여성을 모델로 기용해 그저 남성을 위한 눈요깃거리고 전락시켰다."며 글을 썼다.

시애틀 기반의 암벽등반 의류 회사 '아웃도어 리서치'는 문제의 화보를 보고 GQ에 암벽등반인 사회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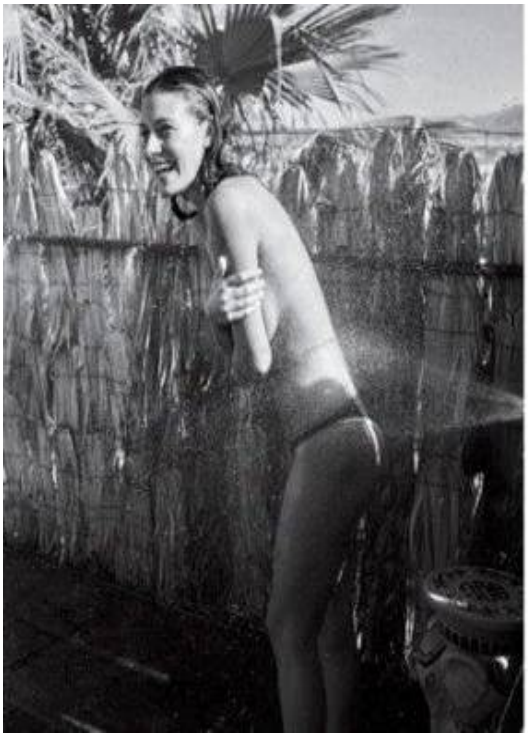
아웃도어 리서치의 마케팅 담당자 에리카 캔필드는 허프포스트 미국판에 "우리 직원 중 몇 명은 GQ 화보가 패러디인 줄 알았다며, 이 화보가 암벽등반인 사회를 묘사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 정말 성차별적이었다."며 화보를 본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GQ 화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주기 위해 멋진 패러디 화보를 촬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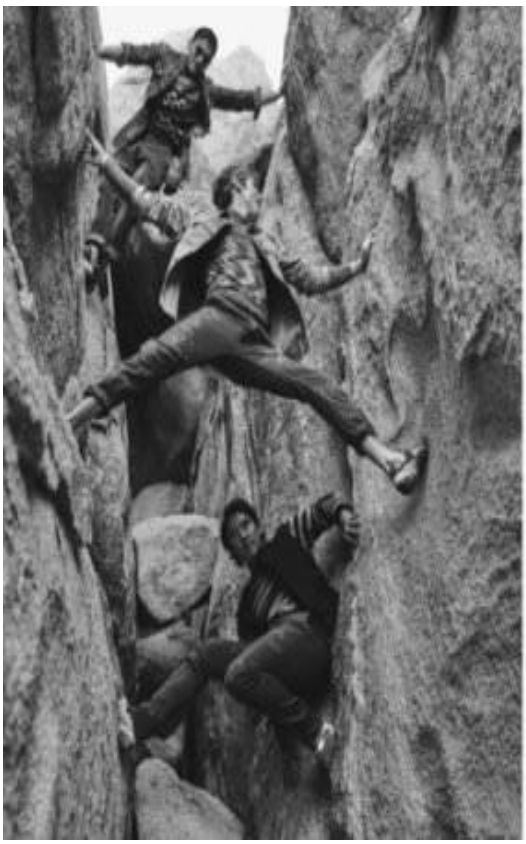
캔필드는 이어 허프포스트에 "여성 클라이밍 선수가 그저 옆에 앉아 남성 선수를 쳐다본다는 생각은 엉뚱하기 그지없다."며 이 화보에서는 남성들이 주변에 앉아있고 여성들이 실제로 암벽을 타게 했다. 기존 화보에서 모델들의 성별을 뒤바꾼 것이다.

아웃도어 리서치의 패러디 화보는 아래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멋진 패러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Q, Outdoor Research



GQ, Outdoor Research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허핑턴포스트US의 Athletes Mock GQ Photo Shoot To Show Why Climbing Like A Girl Is A Good Thing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Sexism Represented in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Focu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xism represented in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It examines how sexist perceptions are represented and reveals why this become a problem by analyzing the narrative contents of the geography part of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under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range of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geography part(1-7 units) of the <social studies ①> textbooks in middle school. Also this study reveals Sexism by analyzing materials of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presented in the textbook.

This study raises three research problems for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First, is there any gender bias in the appearance frequency in the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presented in the textbooks? O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haracters is varied according to the gender?

Second, how are the activities, roles, attitudes, and occupa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provided in the textbooks according to the sex?

Third,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range of activity space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depending on the sex? If so, what does this mean?

Results are following: first, female characters in the pictures, illustrations, and texts in the textbooks were found only in 40~43% of the male characters in there, so all were analyzed as being male-oriented.

Als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haracters was analyzed as being male-oriented as well. In other words, it appeared that male characters usually lead the situation, convey information, and solve problem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econd,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s showed that the female characters are less positive and have fewer activities than the male characters (the number of female activities was one third of male activities).

Moreover, it seemed that the female characters are engaged in sex stereotyped activities. For example, the male characters were depicted as skiing, rock climbing, taking pictures of lava, and sunbathing, while female characters were depicted as holding a child, vacuuming, or etc.

This was the same as the case of job. The types of jobs being represented as a female occupation were only one-third of what was suggested as male's occupation. Also, it was represented that women are engaged in the type of business that many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working, such as nurses, dieticians, teachers, weather casters, bankers, and etc., or the type of business either providing services or related to care work. This can be said as a stereo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sex role. On the other hand, it was represented that female characters play an ancillary role and have a passive and dependent attitude in comparison with the male characters in the textbooks.

Third, in the results of dividing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into the spatial scales of family, community, country, and world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ctivity by sex,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ex. For example, in the characters working in the world scale, it was represented as 9 times in the female and 29 times in the male. Out of these, the case female characters are represented as doing the activities of the world scale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male characters was only one(Visiting uncle's house in Australia for vacation).

In addition to this, there were many problems such as non-visualization of social minorities, ageism, reflection of the social atmosphere that denied the aging of women in the textbooks, or etc. And this study found these points and explained why these points are inadequat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sexism in these discriminatory perceptions, all the subjects participating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s(the textbooks writers composed of experts in each a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llustrators drawing and organizing the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the people in charge of publisher participating in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textbooks in general, and etc.) should pay attention to include the consciousness of the gender equalit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textbooks. Also, all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extbooks should be mandatory to have gender equality-related education, which should include specific examples of writing the gender discriminative textbooks.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textbooks reflecting the gender equality should be developed, and then they should be advised to strictly obey the guidelin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extbooks.

key word: Feminism, Feminist geography, Representation, Sexism, Sex stereotype, Textbook analysi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